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련, 선양,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독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백민아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연구원)

연소민 (서울대 시간강사)

연구보조원: 이지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 요약

교육부와 통일부는 2015년부터 국내학교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같은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포괄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대련, 선양,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세 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통일에 대한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선진국 도약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인륜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인지 그다지 절박하게 여기지 않았다. 국내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문항이다.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정치체제의 차이를 1순위로 대답한 것은 국내 학생들과 유사하지만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통일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거라는 인식은 국내 학생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형성하게 되는 글로벌적 시각이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북한 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써 국내·외 학생들 모두 언론매체나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 관련 경험’ 항목에서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북한 사람을 주변에서 마주치거나 북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등 국내 학생들이 하기 힘든 직접적인 경험을 소지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가장 관심 있었던 것에 대해 선양, 연변, 대련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단이나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도 아주 강하였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도는 중국 지역 내에서 무역을 하러 통행증을 보유한 채 중국을 오가는 북한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외화 벌이를 위해 일하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을 만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접촉 경험은 재외한국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도 동일한 경제적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

아가 이러한 직간접의 접촉 경험은 그들이 남과 북을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이로 인식하게 하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한편 재외 지역의 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국내보다 자주 받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재외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은 국내에서보다 역사적 내용과 더욱 밀접한 연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 결과로 보아, 재외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은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더불어 균형적인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향성에 따라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원칙으로 <정체성>, <소통성>, <세계시민성>의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한다. 첫 번째 정체성은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두 번째 소통성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상호문화 교육, 관계적 가치를 청소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다양성 교육을 지향하며, 세 번째 세계시민성은 재외한국학교 학생과 국내 학생 간, 재외한국학교 학생과 국제학교 학생 간 교류 활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시민 의식을 갖추고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인식 개선의 교육적 경로인 통일교육은 청소년의 통일감수성, 문화다양성, 반편견 등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피교육자가 상호문화적 자질을 체화하고 그 결과 구성원 간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적인 상황으로 여긴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 어떤 교육내용으로 어떤 자질을 어떤 기본방향에서 계발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재외 청소년들에게 한국인 정체성과 통일감수성을 키워줄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재외 청소년들이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일감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인식개선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포괄적으로 가치 교육을 지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내용 및 범위	3
1.3 연구 방법	4
1.4 선행연구 검토	11
2.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반	15
2.1 통일교육의 일반적 방향	15
2.2 상호문화적 관점의 통일교육	19
2.3 인식 개선 관점의 통일교육	24
2.3.1 실재와 인식	24
2.3.2 통일인식 개선의 의미	25
3.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 및 시사점	30
3.1 기초분석	30
3.1.1 통일에 대한 인식	31
3.1.2 북한에 대한 인식	44
3.1.3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57
3.2 심층분석	60
3.2.1 통일 인식과의 상관관계	60
3.2.2 북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64
3.3 소결	65
4. 통일교육 프로그램 설계	68
4.1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원칙	68
4.2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체계	73
4.3 교안 사례: '정체성 가치', '세계시민성 가치' 부분	79
4.3.1 수업 설계	79
4.3.2 수업 진행을 위한 교안사례	81
5. 결론	88
참고문헌	91
부록	94

<표 목차>

<표 1> 교사 자문 문항	5
<표 2> 연구참여자 모집인원	6
<표 3> 통일인식조사 설문문항	6
<표 4> 통일교육의 목표	15
<표 5>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7
<표 6> 설문 응답자 일반 특성	30
<표 7>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60
<표 8> 통일문제 관심도와 변인별 상관계수	61
<표 9> 남북통일 필요성과 변인별 상관계수	62
<표 10> 변인별 일원분산분석	64
<표 11> 통일인식 개선 교육 개념도	73
<표 12> 상호문화 역량 구성요소	76
<표 13> 재외한국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8차시 구성	77
<표 14>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의 약안	80
<표 15> 3차시 강의 교안	81
<표 16> 7차시 강의 교안	83
<표 17> 8차시 강의 교안	85
<표 18> 1번 문항 응답 비율	94
<표 19> 2번 문항 응답 비율	94
<표 20> 3번 문항 응답 비율	95
<표 21> 3-1번 문항 응답 비율	95
<표 22> 3-2번 문항 응답 비율	96
<표 23> 4번 문항 응답 비율	96
<표 24> 5번 문항 응답 비율	97
<표 25> 6번 문항 응답 비율	97
<표 26> 6-1번 문항 응답 비율	98
<표 27> 7번 문항 응답 비율	98
<표 28> 8번 문항 응답 비율	99
<표 29> 9번 문항 응답 비율	99
<표 30> 10번 문항 응답 비율	100
<표 31> 11번 문항 응답 비율	100
<표 32> 12번 문항 응답 비율	101
<표 33> 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2
<표 34> 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2

<표 35> 3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2
<표 36> 3-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3
<표 37> 3-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3
<표 38> 4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3
<표 39> 5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4
<표 40> 6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4
<표 41> 6-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4
<표 42> 7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5
<표 43> 8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5
<표 44> 9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5
<표 45> 10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6
<표 46> 1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6
<표 47> 1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6
<표 48> 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7
<표 49> 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7
<표 50> 3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8
<표 51> 3-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8
<표 52> 3-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9
<표 53> 4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9
<표 54> 5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0
<표 55> 6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0
<표 56> 6-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1
<표 57> 7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1
<표 58> 8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2
<표 59> 9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2
<표 60> 10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3
<표 61> 1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3
<표 62> 1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4

<그림 목차>

<그림 1> 북한 접경지역 3개 학교 위치	3
<그림 2>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전체 학생 비교	31
<그림 3>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학교별 비교	31
<그림 4> '남북통일'에 대한 이미지: 전체 학생 비교	32
<그림 5> '남북통일'에 대한 이미지: 학교별 비교	32
<그림 6> 통일의 필요성: 전체 학생 비교	34
<그림 7> 통일의 필요성: 학교별 비교	34
<그림 8> 통일이 필요한 이유: 전체 학생 비교	35
<그림 9> 통일이 필요한 이유: 학교별 비교	35
<그림 10>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전체 학생 비교	37
<그림 11>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학교별 비교	37
<그림 12> 통일의 장애요인: 전체 학생 비교	39
<그림 13> 통일의 장애요인: 학교별 비교	39
<그림 14>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 中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40
<그림 15> 통일의 이익(통일 편익): 전체 학생 비교	41
<그림 16> 통일의 이익(통일 편익): 학교별 비교	41
<그림 17> 통일의 이익 유형: 전체 학생 비교	42
<그림 18> 통일의 이익 유형: 학교별 비교	42
<그림 19> 북한에 대한 인식: 전체 학생 비교	44
<그림 20> 북한에 대한 인식: 학교별 비교	44
<그림 21> 북한 주민의 통일 희망여부: 전체 학생 비교	47
<그림 22> 북한 주민의 통일 희망여부: 학교별 비교	47
<그림 23> 북한 정보 유입 경로: 전체 학생 비교	48
<그림 24> 북한 정보 유입 경로: 학교별 비교	48
<그림 25> 북한 관련 경험 유형: 전체 학생 비교	50
<그림 26> 북한 관련 경험 유형: 학교별 비교	50
<그림 27>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 가능성: 전체 학생 비교	53
<그림 28>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 가능성: 학교별 비교	53
<그림 2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전체 학생 비교	55
<그림 3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학교별 비교	55
<그림 3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심 내용: 전체 학생 비교	57
<그림 32>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심 내용: 학교별 비교	57
<그림 33> 북한 인식과 통일문제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 도표	63
<그림 34> 북한 인식과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간의 상관관계 도표	63

1.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5년부터 교육부와 통일부가 주관하여 매년 시행하는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교육의 경험과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¹⁾ 변종헌(2017, p.26)은 통일의식조사를 “북한과 통일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정의하면서, 최근의 의식조사는 단순히 조사 대상자들의 시각과 태도를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고 구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일의식은 통일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동시에 통일에 대한 감정이나 행태를 포괄하는 통일에 대한 태도 전반을 의미한다(이상걸, 2015, p.41; 박명규 등, 2009, p.4). 통일인식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갖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들에 의해 변화되며(김병조, 2015, p.37), 개인의 삶과 사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교나 가정 등 주변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때문에 통일인식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통일인식이 변화했는지, 통일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매년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외 지역의 학생들은 같은 청소년 포레임에도 인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16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34개의 재외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해외소재 우리나라 정규학교로 약 14,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재외한국학교는 대한민국의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육기관임에도 불

1)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통일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조사에서는 통일과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조. 이정환, 2017:3-4)

구하고 통일교육 등 특성화 교육의 지원이 국내 학교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통일인식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²⁾ 재외동포의 통일교육 실태와 통일의식 관련된 연구에서도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통일의식 실태와 통일의식 제고 방안을 교육과정 및 제도·정책적 지원방안 측면에서 논의하긴 하였으나(전형권, 2015), 기존 연구들에서 시행한 간헐적인 통일의식 조사 결과들을 문헌 분석만 하였을 뿐 실제 재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조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해외 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인식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특히 중국 지역 내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을 정리하고 여기에 맞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청소년들의 삶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학생들과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 통일인식조사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고 향후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는 해외 통일교육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재외 지역에서의 맞춤형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 역량을 계발시키는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2) 국내에서처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인식조사는 부재한 상황이며, 통일부나 민간단체 주도의 간헐적 조사 혹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발성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만 존재한다.(참조. 미주지역 재외동포 인식조사 등)

1.2 연구 내용 및 범위

1)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그림 1> 북한 접경지역 3개 학교 위치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따라 대련, 선양, 연변에 재외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세 학교에 약 5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가 갖는 지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재외지역 학생들은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접경지역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기존 국내 인식조사와의 차별점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로 어디인지, 북한 관련 경험을 해본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설문조사 항목에 추가하여 살펴본다.

2)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과 재외지역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차이 비교

대련, 선양, 연변 세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일인식은 무엇인지 그 특성을 확인해보며, 세 학교 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항목에서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본다. 학교별, 학교급별, 성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통일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학생들의 통일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를 모색한다.

3)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원칙 설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특히 국내와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외한국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통일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집단적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원칙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1.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설문 문항 설계

-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조사 및 조사 결과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재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 검색
- 통일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기존 국내에서 진행된 통일인식조사 문항지 검토 및 문항 선별 작업 진행

2) 교사 자문

- 1차: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대련, 연변, 선양한국국제학교의 협력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자문 의뢰함. 국내와 다른 현지에서의 상황 및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 2차: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함.

질 문

1. 현재 해당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실시하고 있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수, 교과내용의 구성, 교사 등)
2. 선생님께서는 ‘통일교육’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 비교하여 재외한국학교의 통일교육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선생님께서는 ‘북한’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얼마나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북한은 ‘한민족 공동체,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계의 대상’ 등.)
4.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면서 북한과 북한 주민 관련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또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5.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표 1> 교사 자문 문항

교사 자문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연구진과의 이메일을 통한 의견 교환으로 진행되었다. 2차 자문의 경우 학생들의 설문조사 시행 후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들의 통일인식이 특정 학교나 교사의 통일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학교에서는 어떠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교사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시행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항목을 보다 구체화 하여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시행

■ 연구참여자 모집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연구 대상인 연변, 선양, 대련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함.

연변한국국제학교 : 67명 (중등 31명, 고등 36명)
 선양한국국제학교 : 90명 (중등 40명, 고등 50명)
 대련한국국제학교 : 125명 (중등 45명, 고등 80명)

<표 2> 연구참여자 모집인원

- 해당 세 개 학교의 교장 및 교사(협력위원)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함.
- 각 학교의 연구 협력교사에게 연구설명서와 동의서(학생용/법정대리인용) 전달함.
-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은 협력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모집 및 동의를 위한 절차를 설명함.(물리적 거리의 문제로 이메일을 통한 서면 소개 및 화상통화 등의 방식 활용)
- 각 학교 담당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본 연구에 대해 알리고 설명서와 연구참여동의서(학생용/법정대리인용)를 배부하여 정해진 일자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동의서 수합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설문조사 시행

- 장소: 연구참여자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 내
- 일시: 2019년 9월 초
- 설문문항수: 18문항
- 소요시간: 약 10~15분
- 설문내용: ① 통일에 대한 인식 ②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③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세 가지 대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함.

[설문문항]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 인식 조사 (연변, 선양, 대련)

I. '남북통일' 에 대한 인식 조사

1.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 ② 약간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①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 ② 남북한 사이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
- ③ 남북한 사이 가치와 문화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
- ④ 남북한 사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 ⑤기타 (서술 : _____)

3.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3번 문항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3-1문항 / ③, ④를 선택한 경우, 3-2문항으로
가십시오)

3-1. (①, ② 선택)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므로
- ②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 ③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 ④ 핵 위험 등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 ⑤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⑥기타 (서술: _____)

3-2. (③, ④ 선택)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
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남북한 사이 정치체제의 차이가 커서
- ② 남북한 사이 사회문화의 차이가 커서
- ③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서
- ④ 남북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에
- ⑤ 남북통일로 인해 주변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기에
- ⑥기타 (서술: _____)

4.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
- ②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 ③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
- ④ 통일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반대와 무관심
- ⑤ 기타 (서술: _____)

5.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던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분단과 한국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
- ② 의식주 등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
- ③ 남북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 · 사회적 이익
- ④ 북한 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
- 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정치체제의 차이
- ⑥ 기타 (서술: _____)

6. 남북통일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약간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번 문항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6-1문항으로, ③ ④를 선택한 경우 7문항으로 가십시오)

6-1.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광산 개발, 건설, 관광업 등 취업 기회 확대
- ② 북한과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여행 기회 확대
- ③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발전 기회 확대
- ④ 북한의 음식, 명소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확대
- 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를 사귀게 될 수 있는 기회 증대
- ⑥ 기타 (서술: _____)

II. '북한' 및 '북한주민' 에 대한 인식 조사

7.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나요?

- ① 우리와 동일한 한민족 공동체이다.
- ②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 ③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 ④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8. 북한주민은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원할 것이다.
- ② 다소 원할 것이다.
- ③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9.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나요?

- ① 부모님이나 친구들
- ② 학교의 도덕/윤리 등 수업시간
- ③ 인터넷 검색 사이트 혹은 SNS
- ④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10.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해보았나요? (복수 선택 가능)

- ①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 ②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
- ③ 북한 음식을 먹거나 북한문화를 체험해 본 경험
- ④ 북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나 동아리에 참여해 본 경험
- ⑤ 기타 (서술: _____)

11. 북한 출신의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① 같은 또래 친구이므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
- ②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
- ③ 북한 출신이다 보니 친구가 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
- ④ 친구가 되기에는 매우 꺼려진다.

12.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④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II. 인적 사항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① 중국 대련
- ② 중국 선양
- ③ 중국 연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여자
- ② 남자

3. 귀하는 몇 학년에 재학 중인가요?

- ① 중학교 1학년
- ② 중학교 2학년
- ③ 중학교 3학년
- ④ 고등학교 1학년
- ⑤ 고등학교 2학년
- ⑥ 고등학교 3학년

<표 3> 통일인식조사 설문문항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SPSS (ver.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 분석함.
- 설문참여 학생들을 ‘거주 지역’, ‘성별’, ‘학년’ 변수 항목으로 나눠 결과값을 SPSS 프로그램에 입력함.
- 변수값 코딩: 거주 지역(대련=1, 선양=2, 연변=3), 성별(남자=1, 여자=2), 학년(1학년=1, 2학년=2, 3학년=3), 각 문항번호(01, 02, 03...)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각 문항마다의 결과값 빈도와 분포, 그리고 답변 학생의 거주 지역/성별/학년 변수에 따른 결과값의 유의미도를 파악함.
- 출력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각 변수별 빈도와 분포도를 도표로 정리하며,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날 경우 결과값을 바탕으로 관계 해석함.

■ 포커스 그룹인터뷰 진행

-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안 몇 가지

를 선정하여 인터뷰 문항을 설계함.

- 학교별로 중1~고3 학생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5명의 학생들을 선정함.
- 선정된 학생들의 경우 학생용/법적대리인용 동의서를 전달하여 수합함.
- 12월 초 선양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함.

1.4 선행연구 검토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부·통일부 주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와 20세 이상 성인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민관단체의 주도하에, 혹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인식조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조사 관련 연구와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일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및 통일인식조사 관련 연구

국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주목한 연구로 변종현(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하였으며, 2016년 결과에 따르면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인 차원에서보다 도구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점 더 낮아지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방식의 변화와 체험학습 위주의 통일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주화(2018) 역시 청소년 세대의 통일의식은 한민족이라는 당위론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람(2018)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공동

체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보다 개인의 삶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는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민족통일중앙협의회(www.mintong.or.kr)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민족통일문예제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통일문예 작품을 분석하여 통일의식을 추출해 낸 연구도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첫째,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여기는 ‘민족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둘째, 안보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셋째, 국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였으며 넷째, 수학여행 또는 가족여행을 통해 북한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관광교류 희망이 높게 나타났음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이정환, 2017).

한편 세대별 통일 인식에 주목하고 청소년기 통일인식의 중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서현진(2017)은 청소년기에 받은 통일교육이 통일인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소년기의 통일교육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김병조(2015)는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인식을 분석한 것은 동일하나 세대별 통일의식이 다른 이유로 북한 및 대북정책이 인식을 분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지리적 특수성이 학생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 연구로 이해영(2016)은 파주, 연천의 휴전선 접경지역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비접경지역 국내 학생들의 인식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통일 인식에 특별한 차이를 가져오진 않았으며 오히려 접경지역 학생들의 경우 분단이나 북한과 연결시키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써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내 학생들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2) 재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조사 관련 연구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연구소 및 부설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에서 미국 LA 지역의 재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교포 청소년들은 조사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한반도 및 통일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유석(2014)은 대안책으로 K-pop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조국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한글학교 교재에 통일문제

를 포함하여 가르치는 식의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상걸(2015)은 재일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통일의식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상걸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관심도, 통일 방법 등을 포함하는 ‘통일문제’와 북한주민의 실상, 북한의 이미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북한문제’, 남북한 경제교류의 효과,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된 ‘대북정책문제’로 통일의식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의지’, ‘통일 관심도’, ‘실천적 태도’를 통일의식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3)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박보람(2018)은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통일교육 내용의 중요도,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현철, 조철호(2018)는 통일교육의 주요 평가기준을 ‘보편성, 포괄성, 자발성’으로 설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일교육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의 통일교육을 진단, 평가하며 미래의 통일교육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통일교육의 평가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적·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통일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통일 관련 국내외적인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통합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보다 토론, 체험학습, 참여 학습과 같은 쌍방향 수용자 중심의 학습자 주도형 교육으로 변화해야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주도형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보면 통일교육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도출된다. 그러나 재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재외동포’에 대한 범위 설정이 포괄적이어서 합치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움에도 재외동포와 재외 지역 청소년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다수 연구는 ‘3세대’ 혹은 ‘차세대 재외동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중국적자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식조사는 한국어 의미 전달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통일이 무엇이고 남북관계의 현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외에 ‘재외국민’이라고 지칭되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한국 국적이며 국내 학생들과 동일하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때문에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경우 차세대 재외동포의 개념보다는 국내 청소년들과 동일하면서도 상황적 차이를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들은 평화통일의 관점 하에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의 방향을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으나 방향 제시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구체적인 수업 설계의 원칙이나 수업 진행을 위한 지침 혹은 교안 개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겠지만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대응 차원에서 맞춤형 통일교육의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반

2.1 통일교육의 일반적 방향

외부의 사건에 의해 상시적으로 변화하는 통일인식을 긍정적인 변화로 유도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교육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 이후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중헌, 2017, pp.43-44).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의지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여 학교통일교육 지도 방법을 제시해왔다. 특히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초·중·고등학교로 세분화하고 도덕과와 사회과 수업에서의 지도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2018년에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명칭을 바꾸어 일부 개정한 지도안을 공개하였다.³⁾ 이 개정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내용 및 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통일교육 시 지향해야 할 시각 및 중점사항과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입각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p.6-8).

<통일교육의 목표>

1)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여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

3)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었고,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2018년도에는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으로 명칭을 바꾸어 발간되었다.

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안보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3)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 중요하다.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평화의식 함양

분단 이후 지속된 남북 간 체제경쟁과 대립은 민족간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우리 사회 내에서도 분단 경험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인식 격차, 개인별·계층별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를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5) 민주시민의식 고양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도록 해야 한다.

<표 4> 통일교육의 목표

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통일교육을 실현한다면 통일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현실은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실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향후 통일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평화·통일의 관점과 방향』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보고 재외지역에서의 통일교육 원칙을 수립하고자 한다.

■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p.10-18)**

1.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2.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3.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4.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8.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9.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10.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13.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 5>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위의 중점 방향 중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항목은 재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서 현재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며 추후 보완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중점과제에 해당된다.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자 국제문제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통일교육은 국내에 머물러 있다. 통일교육원과 재외동포재단이 협약을 맺어 미국 지역에 통일교육 교재를 보급하는 등 해외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수준이며, 특히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국내와 동일한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 통일교육 강사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다. 학교 차원에서 통일관련 대회를 개최하거나 ‘통일 골든벨’ 등을 시행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학생들은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재외한국 학교 학생들 대상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통일이 미래 사회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가 가져올지, 통일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국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떤 형태를 갖춰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통일교육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탈북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수업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 지역,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국 지역의 경우 국내의 포털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통일 편익 등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주입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북한의 실제 모습과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TV와 같은 대중매체, 유튜브 등을 통해 획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의 개인적 경험이 자극적으로 왜곡되거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객관적인 북한 모습의 이해를 돕기에는 부족하다.

통일은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재외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재외 지역에서 형성한 통일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에 들어와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통일에 대해 공감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는 기성세대로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계속 머무르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경우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추고 있을수록 국제 사회 속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분단과 통일에 대한 교육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향후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상호문화역량, 다양성의 가치, 세계시민의식 등을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감수성을 형성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한다.

2.2 상호문화적 관점의 통일교육

1) 상호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통일감수성 제고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상호문화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최근 영역적 질서(남북, 지역, 계층, 관심, 젠더 등)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배경을 지닌 집단 구성원 사이에 이질감을 완화시켜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갖춘 집단들과의 생산적 공존은 사회적 진화의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다양성이 생산적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

상호문화 역량은 대개 다른 집단의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호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타 구성원과의 상호행위에서 그 집단에 통용되는 사회규범과 행동규칙을 준수하며 행위 결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때 그는 상호문화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 역량은 최근에 사회 각 분야에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두루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어 OECD의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2003) 프로젝트는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세 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는데, 범주 2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은 다른 사람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동하며, 여기서 발생된 갈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문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호문화 역량은 남북통일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합당하게 운영하는 자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호문화 역량은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情意的) 차원에 두루 걸쳐 있다. 인지적인 차원의 상호문화 역량은 남북 주민의 가치, 의사소통 스타일 등 가시적 문화 행위를 이면에서 조정하는 규범이나 법칙에 대한 안목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구체적 실천행위(예를 들어, 생활방식, 관습, 풍습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방식을 조종하는 근원적 힘(전통, 문화,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지식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의적인 차원의 상호문화 역량은 남북 주민이 지닌 다른 생각과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공

4) 참조,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OECD, 2005.05.27

감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타 집단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로서 자기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 다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제거, 감정이입능력 등을 아우른다.

상호문화 역량의 확산은 인간 보편에 대한 신뢰(=휴머니즘)를 바탕으로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주류사회의 변방에 머물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또 다른 변방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나 조선족 주민들을 국내 학생들보다 더욱 포용적으로 바라볼 여지를 지닌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처럼 변방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북한출신 주민들의 삶을 접하며 이들을 특수집단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위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내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 한민족 공동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편견의 담장을 넘어 ‘모두 다함께’ 라는 공유의식 바탕의 상호문화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문제점보다는 비전 제시 중심

한국에서 통일교육은 무조건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문제점 인식 ⇒ 해결 방향 탐색>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한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접근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북한주민은 곧 도움이 필요한 집단’ 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져, 비록 통일인식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 그늘은 쉽게 걷어 낼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을 설계할 때는 북한주민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해주는 방향은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하더라도(예: 북한이탈주민 정착), 통일인식의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은 의도적으로 긍정적 부분을 내세우는 데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통일교육은 풍부한 경험과 관심도를 기반으로, 사회 안정화 전략에 치중하는 ‘문제 해결형’ 접근을 강화하면서도, 통일 상황을 국가 및 사회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전 제시형’ 접근의 비중도 늘려가야 할 때이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유입된 것을 미국의 강점이라고 강조한 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나⁵⁾ 동독출신으로서 통일독일의 최장수 수상 직을 재임하는 메르켈 총

5) 참조, 오바마 대통령 취임연설문(2009) “For we know that our patchwork heritage is a strength, not a weakness. We are a nation of Christians and Muslims, Jews and Hindus, and nonbelievers. We are shaped by every language and culture, drawn from every end of this Earth.”

리의 사례는 우리도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배경적 다양성의 긍정적 영향을 적극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하여 통일교육 담당 교사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활동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을 대하는 바른 의식을 갖추게 하고, 통일한국으로의 전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통일은 개인적 사회적 역량을 키워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 인식을 확산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이주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주현상을 인류사회의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이주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이며, 이주자들이 갖는 다중적 정체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라는(Akashe-Boehme 2000, p.27) 주장에서 보듯이, 향후 분단된 남/북한 주민의 올바른 통합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줄 것이다.

3) 진화 관점의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

비전 중심의 통일 감수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위한 통일교육’ 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통일교육’ 혹은 ‘인류사회를 위한 통일교육’ 으로 아젠더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통일교육 정책의 관점을 두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제된다. 첫째,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에 잘 적응하여 한시바빠 ‘한국적 소통역량’ 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방향이다. 외부 관점의 통일교육 정책에 해당되는 이 방향은 북한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잘 보듬어 그들이 통일한국에 무리 없이 통합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둔다. 둘째, 남북 주민 모두가 ‘상호문화적 소통역량’ 을 키워가며 통일 상황을 통해 새롭게 진화하는 데 관심을 두는 방향이다. 내부 관점의 통일교육 정책에 해당되는 이 방향에는 통일 상황을 통해 청소년 각자에게 유익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가 함께 들어 있다.

이제 통일교육 정책은 북한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요소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일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함께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소통의 자질을 그냥 개인적 성격이나 인품 정도로 생각하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이런 자질도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적 역량으로 인식된다.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배경을 자기주도적으로 포용하

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다양성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 맥락 속에서는 풀기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의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 상황이 야기하는 상이한 시각들 사이의 갈등을 ‘문제’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발전을 위한 ‘계기’로 인식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재외한국학교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호문화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면서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자유·평등·관용·상생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교육내용으로 담아야 한다.⁶⁾

4) 두 집단의 상호작용 강화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이념을 전제로 하여 접근한다면, 정치적으로 합해진 두 집단의 공존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유럽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정책방향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 모습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공존과 존중 중심의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유럽은 요즘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은 FT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 탓에 하나의 국가 안에 ‘별개 사회’(parallel society)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 통합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⁷⁾ 독일 메르켈 수상은 “우리가 공존해 살며 서로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는 다문화주의 접근방식은 실패했다. 주요한 것은 통합이다. 우리와 통합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헌법을 따르고 법을 지키며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⁸⁾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영국은 그동안 서구적 가치를 거부하는 민족적 혹은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해 ‘불간여 포용(hands-off tolerance)’ 정책을 써왔지만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⁹⁾ 대대적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물론 유럽 지도자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다문화주의 실패’를 공식 선언한 것은 보수당의 재집권을 겨냥한 선거 전략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다문화주의의 시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충분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6) 참조: 데일리안 2012.04.24. 황우섭 칼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맹목적 순혈주의

7) 연합뉴스, 2011.02.17, 유럽회의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8) 연합뉴스, 2010.10.17., 獨총리 "다문화사회 건설노력 완전실패"

9) 조선일보, 2011.02.06,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

유럽 정상들의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 선언은 한마디로 문화적 존중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이주민과 자국민의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등한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동료 모델’에 기반을 두어 이주민을 이의사회의 구성원, 즉 남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불간여 포용 및 개인적 거리를 기본 원칙으로 만든다. 다문화 구성원의 독립적 삶을 인정해주며 복지를 통해 그들만의 삶을 보호해준 결과, 유럽의 이주민은 곳곳에서 게토(ghetto)화 된 삶을 살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우리가 맞이한 통일한국에서의 남북주민들도 상호 공존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논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로를 유럽식으로 “내버려 둘 hands off”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서로 참여하고 간여하고 함께 즐기는 우리 전통에 입각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감수성을 키워주는 통일교육의 핵심은 특수집단을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소통하는 내적 기반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포트 Allpor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편견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교류를 할 때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교류가 제도적 지원(법, 관습, 지역 분위기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상호교류를 통해 두 집단의 공동 이익과 바람직한 인간 관계가 인식된다면, 편견 감소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llport, 1958, p.267) 존중과 공존의 달콤한 이미지에 현혹되어 상호교류를 게을리 한 채 그들만의 공간과 활동을 방관한다면, 우리도 통일교육의 실패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 공동체적 간여를 즐기는 한국민의 익숙한 행동패턴을 바탕으로 삼아 지금부터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교류가 더욱 행해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통해 일반적 언어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언어소통에 유달리 무감각함으로써 언어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당사자는 정작 자신의 언어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북한 주민은 다른 사회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구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대칭적 의사소통은 소통참여자 사이에 주도자와 종속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남북한 주민과 같은 상황적 관계에서도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대칭적 의사소통은 화제 선정이나 대화 진행을 일방이 주도하며, 대화자 사이에 발화시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거나 한 측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의사소통의 부담감을 안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인 언어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통일감수성을 높여주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언어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의도에 맞게 의사전달을 잘 구사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이나 입장을 배려하며 최상의 소통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른 집단 구성원이 편한 마음을 갖도록 대해 주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편견이나 집착 없이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2.3 인식 개선 관점의 통일교육

2.3.1 실재와 인식

오늘날 통일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가치교육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통일관련 현상들에¹⁰⁾ 대한 피교육자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인식 개선을 중심에 둘 수도 있다. 인식 개선 관점을 따르는 통일교육의 원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식은 인간이 사물, 사실, 현상 등을 바르게 깨닫는 내적 작용을 뜻한다. 독일의 Duden 사전에는 인식을 “어떤 대상에 관한 인상과 경험들을 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얻은 생각”이라¹¹⁾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통일인식은 ‘국민들이 남북분단 상황이나 통일 국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과 경험을 자신의 의식 속에 반영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 혹은 ‘국민들이 통일관련 현상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 대상을 인간의 의식에 반영하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기에, 통일인식에 대한 성찰은 국민들이 통일관련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영향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식 현상의 근본 구조는 양극적 구조 Die Grundstruktur des Erkenntnisphänomens ist eine polare.” 라는 헤센 J. Hessen(1964, p.180)의 명제에서 보듯, 모든 인식에는 ‘실재적 대상’ 과 ‘인식하는 사람’ 의 양 축이 설정되어 있다. 즉

10) 여기서 통일관련 현상은 남북한 국가와 그 주민, 체제, 이념, 생활 등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진행 과정과 통일이 완성된 상황까지도 포함한다.

11) Duden :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Dudenverlag 1976, S.733.
“durch geistige Verarbeitung von Eindrücken und Erfahrungen gewonnene Einsicht”

인식에는 대상(what)과 인식자(who)라는 두 구성요소가 형성되는데,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관련 현상이 인식대상이며, 우리 국민(특히 여기서는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청소년)들이 인식자이다. 이러한 양극적 구조로 인하여 인식의 결과는 실제적 대상과 인식하는 사람에 의해 함께 영향을 받는다. 통일인식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통일관련 현상(=인식 대상)에 대한 이해와 재외한국학교 청소년(=인식자)들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그 때문이다.

인식과정에서 사람이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인식 태도는 모두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개인이 각기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겪어온 경험과 이해가 그의 인식 태도를 결정하기에 그러하다. 독일어에서 ‘인식하다’ 라는 어휘 ‘erkennen’ 은 ‘안다’ 는 뜻의 어휘 ‘kennen’ 에 접두사(전철) “er” 를 붙여 사용하는데, 여기서 “er” 는 대상을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복잡한 정신 작용이 일어남을 표현한다. 따라서 통일인식이라는 말도 단순히 국민들이 통일관련 현상을 아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의식 속에서 구성한(혹은 구성해 가는) 생각을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양극적 구조로 인해, 대상을 이해한 ‘타당성’ 의 정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식은 여러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인식태도를 개인적 경험이 낳은 임의의 결과로 보면, 모든 인식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지닌다. 넓은 의미의 인식은 거짓된 것으로 밝혀진 인식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식론은 인식대상과 인식 내용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식에는 꽤 높은 진실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인식은 상호주관적인 공공성에 기반을 두는 ‘지식 Wissen’ 과 대상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고하는 ‘생각 Einsicht’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측에 자유롭게 간여하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인식에서도 바른 인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2.3.2 통일인식 개선의 의미

일반적으로 인식 개선은 실재로서의 팩트와 인간의 정신 작용인 인식의 일치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통일인식 개선은 통일관련 현상이 지닌 참모습(=팩트)을 재외한국학교 청소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바른 의식(=인식)을 갖

게 조정하는 것(=일치화)이다. 그래서 학문적 관심도 주로 인식 작용이 인식대상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는 데 집중한다. 만약 통일교육에서 팩트와 일치하지 않는 인식 개선을 강요한다면 이는 타당성과 관계없이 특정 의도를 고의로 확산시키려 하는 프로파간다나 이데올로기로¹²⁾ 전략될 위험성을 지닌다.

인식 개선의 의미를 더욱 세심히 고찰하기 위해 인식의 유형을 분류하면, 세 가지 유형이 관찰된다. 첫째는 인식을 대상의 모사 Abbilden로 보는 관점인데, 이는 실재적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 “인식은 본질적으로 인식자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의 모사이다.” (Hessen, 1964, p.197) 인간의 의식은 하나의 현상을 접하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때 가장 쉬운 접근방식이 대상을 의식에 직접 투영하며 인식자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구도이다. ‘모사로서의 인식’에서는 언제나 실제 대상이 주체의 우위에 있으면서 객관이 주관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모사로서의 인식은 철저히 통일관련 현상을 향하며, 인식과 현상의 자연스런 일치가 형성된다.

둘째는 인식을 생산 Erzeugen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는 인식하는 사람이 창조적으로 개입하거나 자신이 보아 드러나는 대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모사로서의 인식은 객관이 규정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그저 받아들일 뿐이지만, ‘생산으로서의 인식’은 주관이 규정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사람의 작용이나 개입을 중심에 둔다. 우리가 인식을 통해 얻는 것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자체 Ding an sich’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여된 사물 Ding für uns’ (Hessen, 1964, p.210), 즉 인간 개인의 지평을 근거로 하여 나타난 현실이다. 인식은 그 자체로 순수한 객체가 아니며 주관적인 침부물이 부착된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생산으로서의 인식은 논리적 개념 분석을 근거로 하는 객관주의를 극복하며, 모든 인식 속에 종합적 동기(ein synthetisches Moment)를 설정하게 된다(Hessen, 1964, p.203).

세 번째는 두 가지를 결합한 파악 Erfassen의 관점이다. 여기서는 인식하는 사람이 인식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함께 참여를 한다. ‘파악으로서의 인식’은 양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악으로서의 인식은 앞의 두 차원이 범한 일면성(객관 중심과 주관 중심)의 과오를 극복하는 데 있다. 실제로 인식 작용은 오로지 객관의 영향만, 혹은 주관의 작용만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 의식과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Hessen, 1964, p.219). 이러한 파악으로서의 인식은 인과적 질서에도 적용되는데, 인

12) 과거에 널리 진행되었던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과 개념은 경험 속에 주어져 감성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사태의 모사를 넘어 오로지 인간이 수행하는 냉철한 사유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통일교육에서의 통일인식 개선은 세 번째 유형(=파악으로서의 인식)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인식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이 허용되어 청소년들이 통일관련 현상을 자신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생산으로서의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통일관련 현상의 특정 모습을 절대적인 가치로 고정시키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모사로서의 인식)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통일인식은 ‘타당함 richtig’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됨 wahr’을 추구해야 한다. 타당함이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초월하여 고정된 가치를 지닌 상태라 한다면, 참됨은 청소년 세대가 처해있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상호주관적으로 설정된 합일의 상태이다. 즉, 참됨이라는 말은 인식 밖에 존재하는 사태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태와 주체의 상호작용이 낳은 인식 내용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식론은 “참된 사고에 관한 학문 Lehre vom wahren Denken”이며, 통일인식은 통일관련 현상으로서의 대상을 청소년들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의식 속에 바르게 투영한 상태이다. 참된 통일인식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통일관련 현상의 객관적 사태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한 일치가 성립될 때만 가능하다.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통일인식 개선은 교육적 개입의 차원에서 보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인식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 교정’이다. 인식 제고는 청소년들이 통일관련 현상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고 감응하는 정도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통일감수성 제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파악으로서의 인식에서 대상과 인식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하고 섬세하게 일어나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식 교정은 통일관련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대응방식을 변화시켜주는 개입으로서 개인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거나 특정목적에 맞게 생각을 바꾸어가도록 유도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인식 교정은 생산으로서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파악으로서의 인식에서 대상(=통일관련 현상)과 인식자(=재외국민 청소년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될 때 투입된다.

잘못된 인식은 대개 앞의 세 가지 구분에서 ‘생산’으로서의 인식 유형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의식이나 경험 영역들에 의거하여 대상을 보려하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인식에서도 개인은 한정된 가치 의식이나 경험 영역에 갇혀서 하나의 단면만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편협

성(예: 선입관,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다. 많은 경우에 통일인식은 개인적 집단적 가치 영역에 따라 편협적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개인과 집단이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영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큰 틀에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오늘날 통일교육의 중심 과제이다.

이해의 편협성을 야기하는 고정관념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차적으로는 잘못된 정보 제공에 의해 선입관이 형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의 시각을 바꾸려하는 것은 참다운 인식 개선이 아니며 그저 선전이거나 광고 혹은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가깝다. 통일인식 개선은 국민들이 통일관련 현상의 참모습을 보고 느끼며 나름대로 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이해의 편협성은 한정된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에서도 야기된다. 단면적 정보 제공을 통해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자칫 상대방이 속한 집단 전체를 매도하거나 적대적 태도를 취하도록 자극한다. 맹인이 코끼리 몸의 일부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판단하는 상황과 같은 경우이다. 나이지리아 작가 치마난다 아디치 C. N. Adichie는 그녀의 TED 강연에서 단면적 정보 a single story에 의거한 인간의 인식은 판단의 왜곡과 균형감각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하며, “이러한 인식은 틀렸다 untrue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incomplete는 데 있다.” 고 하였다.¹³⁾ 인식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면, 균형 감각이 약화되며 자신의 소망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여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약해져 고정관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넷째, 본인의 강한 애착이나 자기방어 욕구도 고정관념의 형성에 기여한다. 개인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것만을 무작정 진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다른 대상에 전가하며 편협한 시각을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타 집단을 낮설게 느낌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려 하는 인간심리의 기제가 작동한 결과이다. 차별은 이러한 심리적 자기방어 욕구에 기인하는 바 크다. 통일관련 현상에서 타 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13) 참조, Chimamanda Adichie의 TED 강연 “단면적 정보의 위험성 The Danger of a single story “

못한 모습이며, “공동체를 훼손하는 ‘녹’ 과 같은 존재” (추병완, 2012, p.293)이다. 통일교육은 자기중심적 판단 구조를 유연화 하여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관점에서 공감적으로 바라보거나 특정 개인을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 및 시사점

3.1 기초분석

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련, 선양, 연변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1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7명의 통일인식이 조사되었다. 설문대상 중 108명(41.1%)은 대련한국국제학교, 82명(31.2%)은 선양한국국제학교, 57명(21.7%)은 연변한국국제학교 출신이며, 남녀 성비와 학년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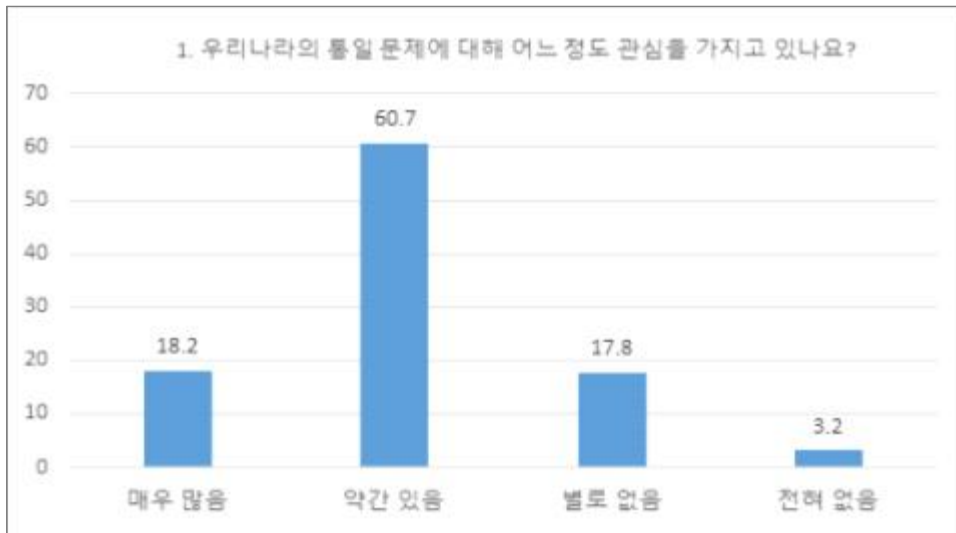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대련	108	41.1
	선양	82	31.2
	연변	57	21.7
성별	여	115	43.7
	남	132	50.2
학년	중1	27	10.3
	중2	29	11.0
	중3	50	19.0
	고1	45	17.1
	고2	44	16.7
	고3	52	19.8
결측값		16	6.1
전체		263	100.0

<표 6> 설문 응답자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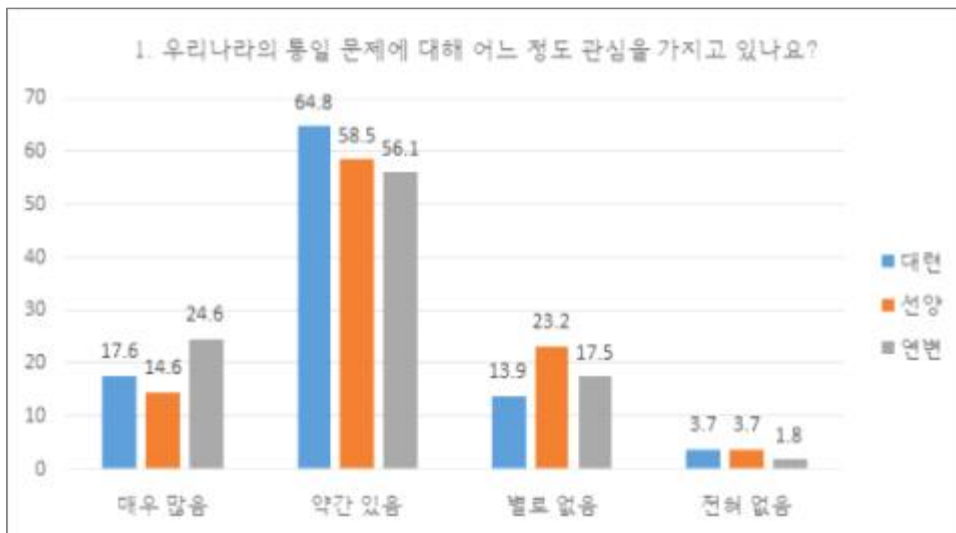
총 18개의 설문 문항 중 1, 2, 3, 3-1, 3-2, 4, 5, 6, 6-1번 문항은 학생들의 ‘남북 통일’ 인식과 관련됐으며, 7, 8, 9, 10, 11, 12번은 ‘북한 및 북한주민’ 인식, 5번은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질의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룬다. 설문조사 결과를 1차 기초 분석 자료로 설정하되 설문 문항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학생 인터뷰 및 교사 자문을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각 문항별 결과를 전체 학생의 응답과 학교별 결과 그래프로 제시하되 몇 가지 유의미한 항목은 학생 인터뷰와 교사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재검증하여 분석한다. 더불어 국내 학생의 통일인식과의 비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3.1.1 통일에 대한 인식

■ 통일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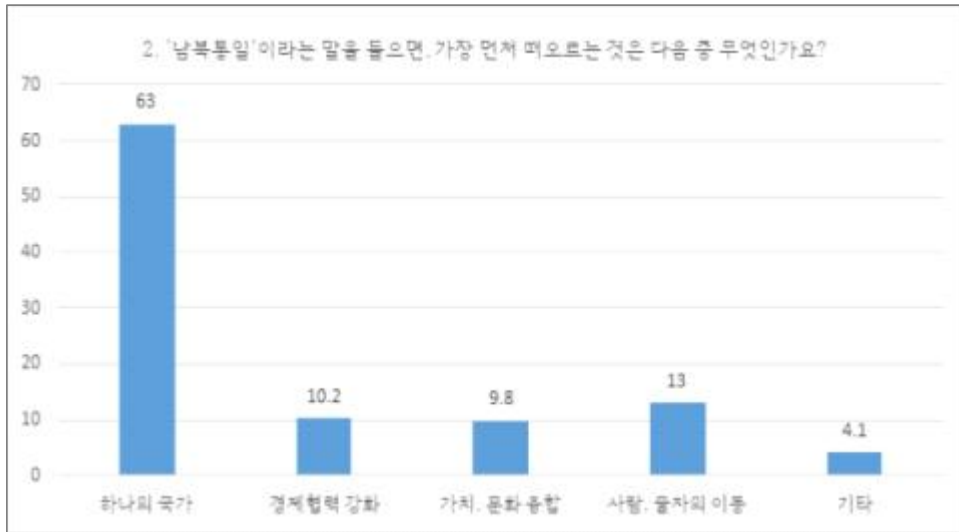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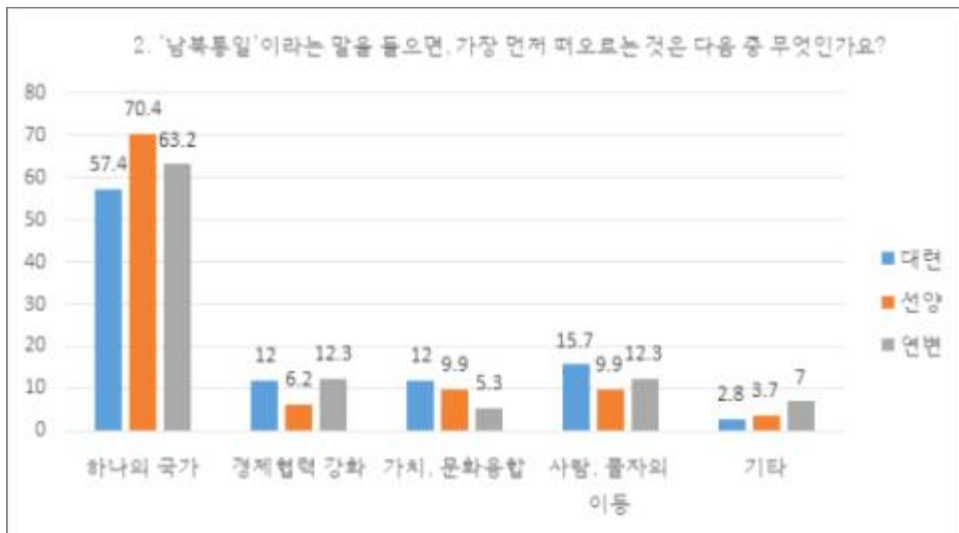
<그림 3>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학교별 비교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 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가 18.2%로 응답자의 78.9%가 긍정적인 관심을 표했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별로 그렇지 않다’ 가 17.8%, ‘전혀 그렇지 않다’ 가 3.2%로 나타났다.
- 세 학교를 비교했을 때 선양한국국제학교의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 다른 학교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남북통일’에 대한 이미지



<그림 4> ‘남북통일’에 대한 이미지: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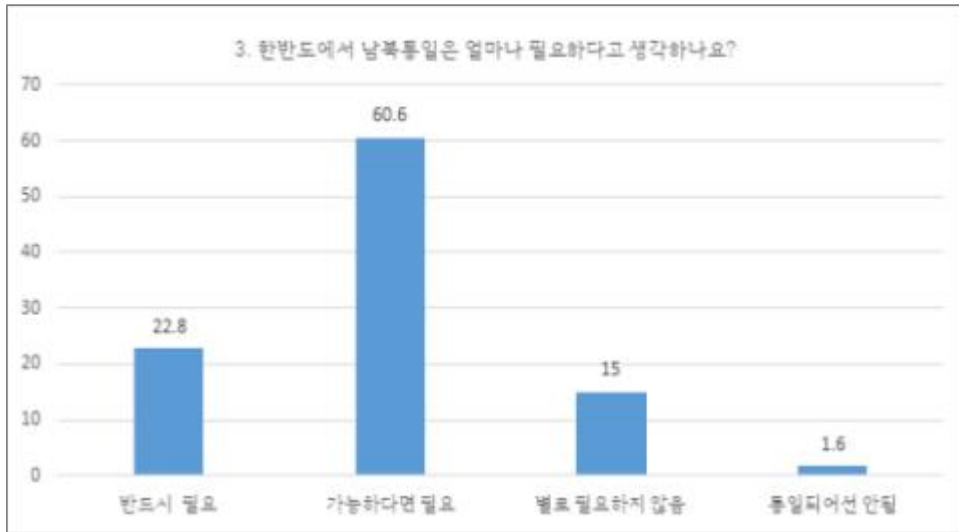
<그림 5> ‘남북통일’에 대한 이미지: 학교별 비교

- ‘남북통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이라는 응답이 13.0%,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10.2%, ‘가치와 문화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응답이 9.8%로 나타났다.
- 대련과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라는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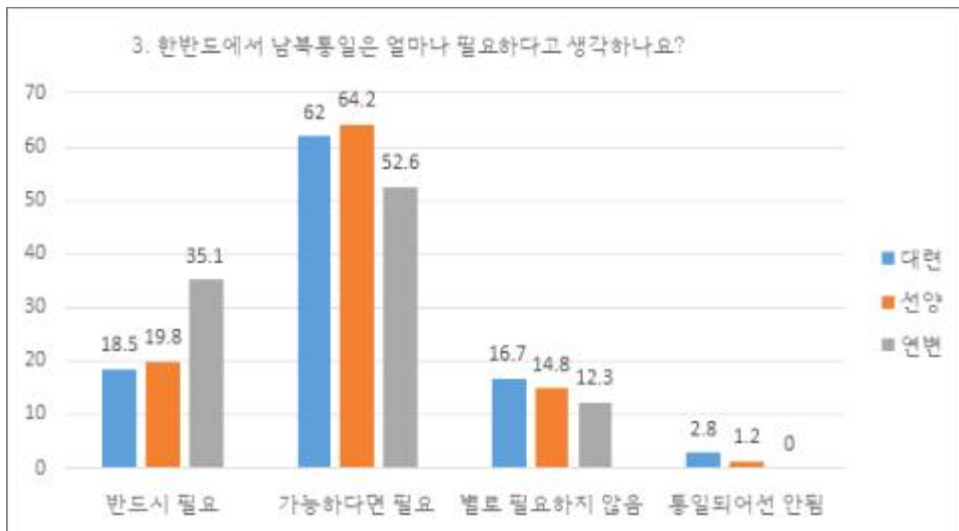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거나 북한 식당들이 있는 지역적 특성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 기타 의견으로는 대련과 선양한국국제학교에서 ‘양국 경제상황 악화’, ‘경제 침체’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가’ 와 같이 경제적 측면을 서술한 답변이 존재했으며, 연변한국국제학교에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 ‘남북한 사이가 자유롭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 과 같이 1번 선택지와 유사한 답변이 나타났다.

■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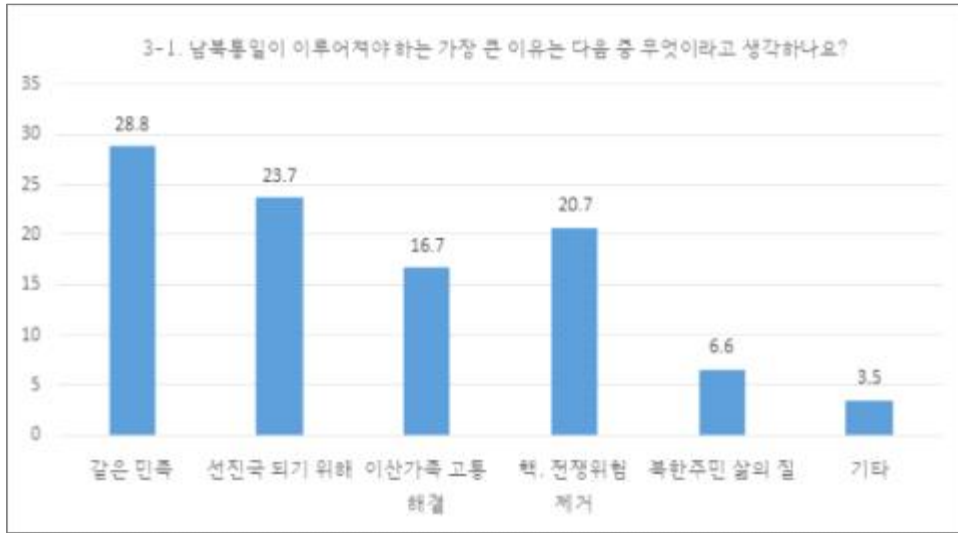
<그림 6> 통일의 필요성: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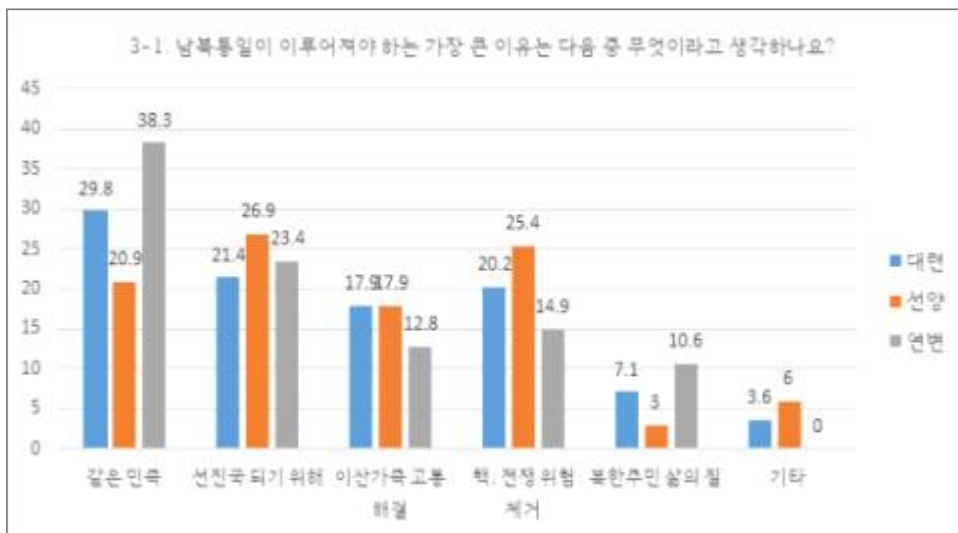
<그림 7> 통일의 필요성: 학교별 비교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8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필요’ 60.6% + ‘반드시 필요’ 22.8%).
- 세 학교를 비교해보면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일이 필요한 이유



<그림 8> 통일이 필요한 이유: 전체 학생 비교



<그림 9> 통일이 필요한 이유: 학교별 비교

- 전체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 23.7%, ‘핵 위협 등의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라는 응답이 20.7%로 뒤따라 나타났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라는 응답은 16.7%,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는 6.6%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기 어려

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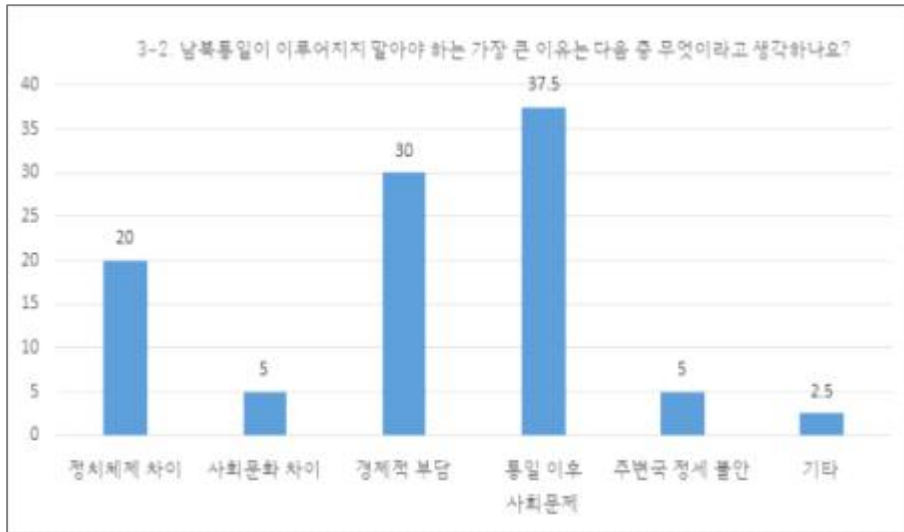
- 선양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선진국이 되기 위해’ 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핵 위협 등의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라는 답변도 25.4%로 다른 두 학교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 기타 응답으로 ‘남북한 서로가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 ‘군대 안 가거나 짧게 가기 위해’, ‘원래 한 나라였으므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일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학생 인터뷰를 통해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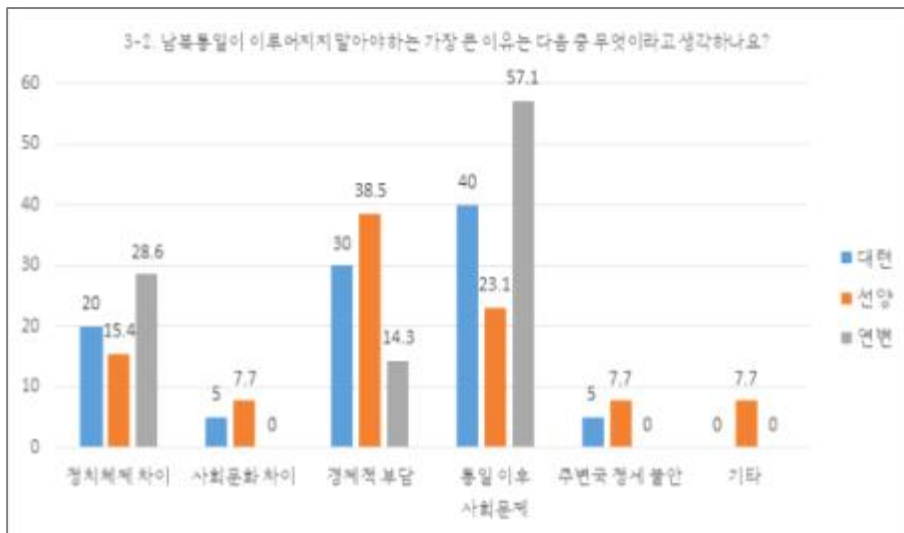
학생 C: 군사비, 이산가족 상봉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라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 제가 그 일을 겪고 있다면, (제가) 이산가족이라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분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의 답변에서 학생은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일 자신이 분단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분단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그림 10>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전체 학생 비교



<그림 11>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학교별 비교

-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전체 응답자 중 37.5%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라고 응답하였고 ‘통일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이 30.0%, ‘정치체제의 차이’ 가 20.0%, ‘사회 문화의 차이’ 와 ‘주변국 정세 불안’ 이 각각 5%로 뒤 이어 나타났다.
- 선양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위 항목에서 다소 다른 응답을 보였는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통일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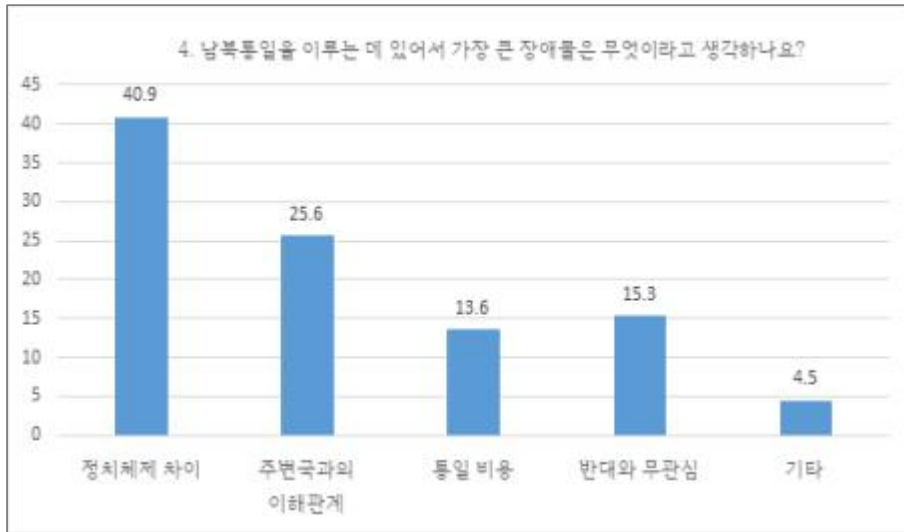
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가 23.1%로 나타났으며 ‘정치체제의 차이’가 15.4%, ‘주변국 정세 불안’과 ‘사회문화 차이’가 각각 7.7%로 뒤따랐다.

다음의 학생 인터뷰는 통일이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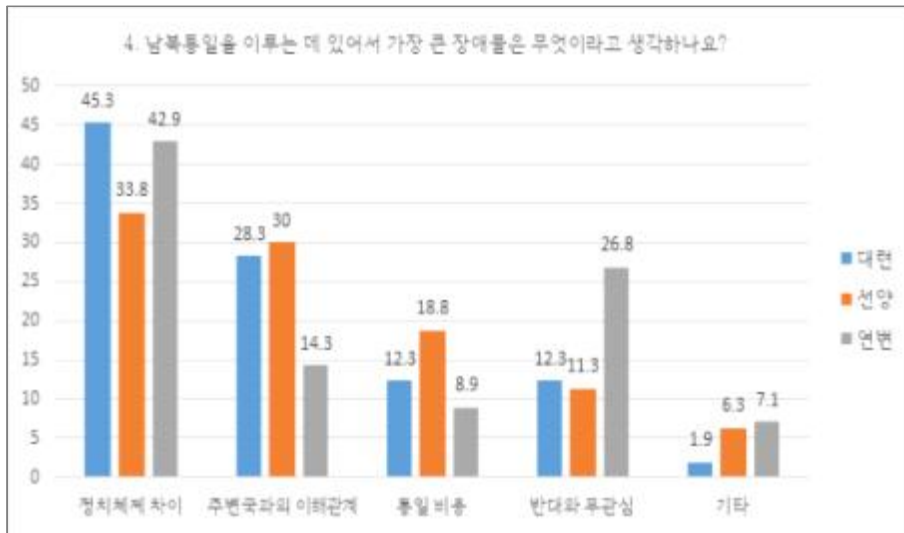
학생 B: 제 생각에는 통일이 지금은 아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한에서 쓰는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이 달라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나서도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통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로 인해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말미에 ‘지금’, ‘아직’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 통일의 장애요인



<그림 12> 통일의 장애요인: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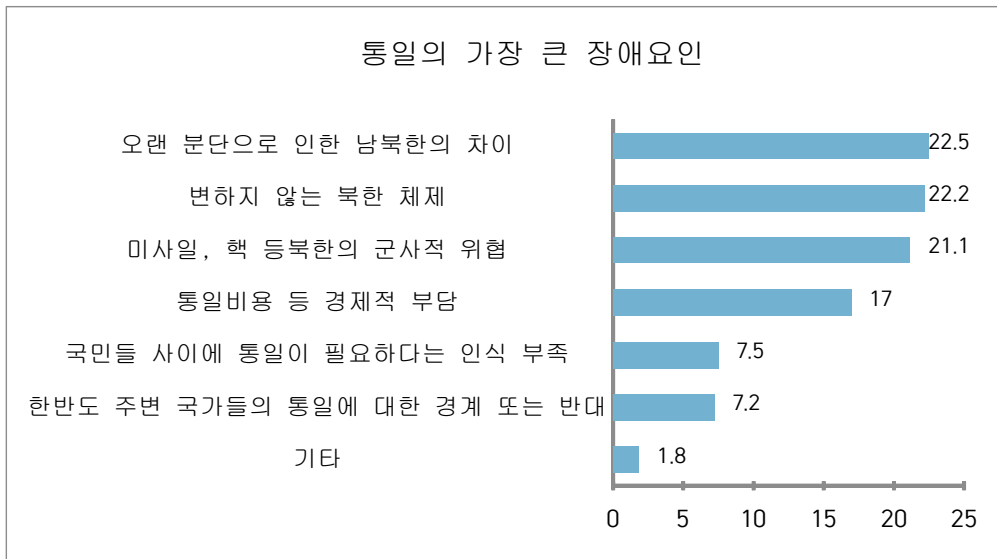
<그림 13> 통일의 장애요인: 학교별 비교

-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 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가 25.6%, ‘통일에 대한 반대와 무관심’ 이 15.3%, ‘통일 비용’ 이 13.6%로 뒤이어 나타났다.
-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동일하게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 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뒤따르는 응답의 순서가 다른 학교와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통일에 대한 반대와 무관심’ 이 26.8%로 나타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가 14.3%, ‘통일 비용’ 이

8.9%로 뒤이어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 ‘통일에 대한 의견 차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 ‘남북한 대통령 간의 의견 불일치’, ‘북한 사상과 문화, 삶’, ‘사회 분위기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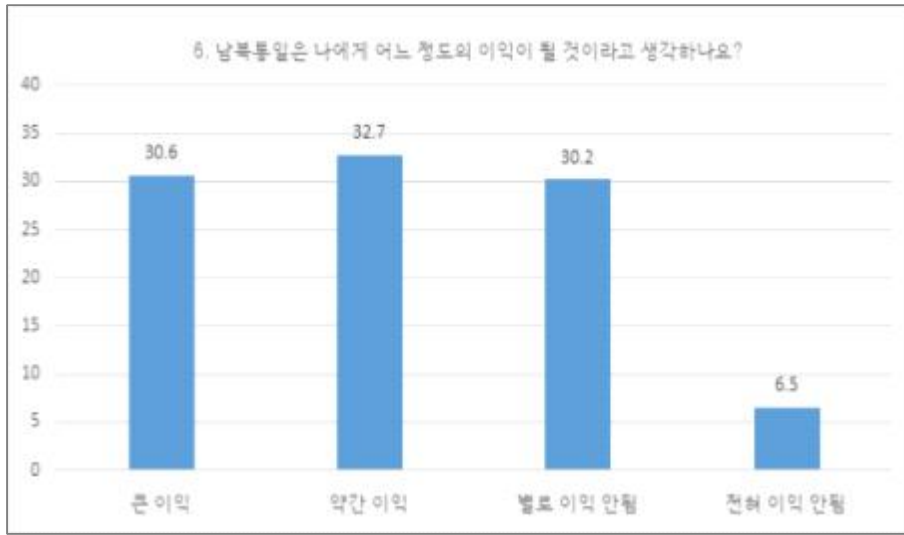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21.1%로 2018년(14.5%) 대비 6.6%p 증가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조사의 항목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기타 의견에서 관련된 학생들의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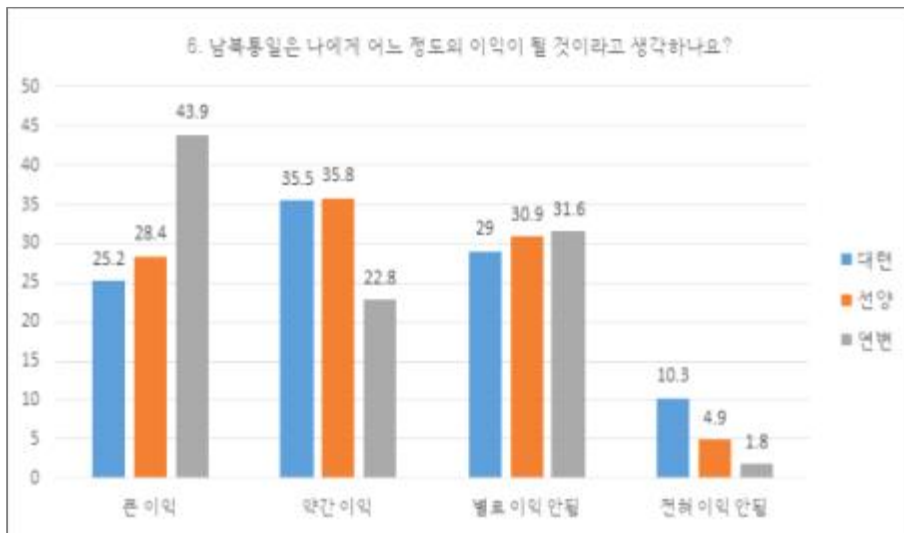
<그림 14>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 중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경우 ‘남북한의 차이’가 22.5%, ‘북한 체제(정치체제 차이)’가 22.2%로 차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사일, 군사적 위협’ 21.1%,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13.0%, ‘인식 부족’이 7.5%로 이어졌으며, ‘한반도 주변국의 경계 또는 반대’가 7.2%로 기타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치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제외한 국학교 학생들의 경우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외 지역에서 거주 지역의 미디어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국내의 학생들보다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통일의 이익 (통일 편익)



<그림 15> 통일의 이익(통일 편익):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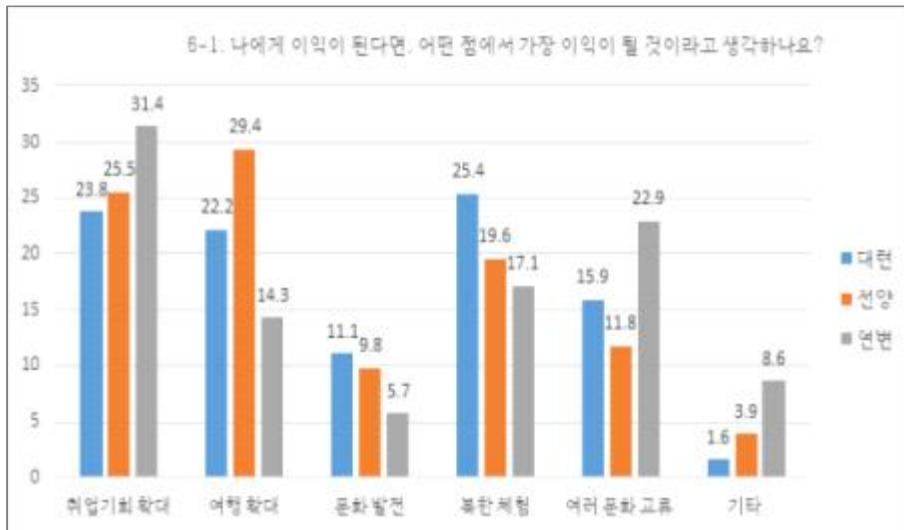
<그림 16> 통일의 이익(통일 편익): 학교별 비교

- 남북통일이 ‘큰 이익’ 또는 ‘약간의 이익’ 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3.3%로 높게 나타났다.
- 대련과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약간 이익이 될 것’ (대련 35.5%, 선양 35.8%)> ‘별로 이익이 안 됨’ (대련 29%, 선양 30.9%)> ‘큰 이익이 될 것’ (대련 25.2%, 선양 28.4%)> ‘전혀 이익이 안 됨’ (대련 10.3%, 선양 4.9%)의 순으로 동일한 응답 순서를 보였으나,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큰 이익이 될 것’ (43.9%)> ‘별로 이익이 안됨’ (31.6%)> ‘약간 이익이 될 것’ (22.8%)> ‘전혀 이익 안 됨’ (1.8%)의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 통일의 이익 유형



<그림 17> 통일의 이익 유형: 전체 학생 비교



<그림 18> 통일의 이익 유형: 학교별 비교

-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일이 나에게 줄 이익에 대한 질문에 ‘취업기회 확대’ 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행 기회 및 범위 확대’ 가 22.8%, ‘북한 체험’ 이 21.5%, ‘여러 문화와의 교류’ 가 16.1%, ‘문화 발전’ 이 9.4%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문항은 특히 세 학교의 학생들의 응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개인적인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련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북한 체험’에 대한 기대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취업 기회 확대’가 23.8%, ‘여행 확대’가 22.2%, ‘여러 문화 교류’가 15.9%, ‘문화 발전’이 11.1%로 나타났다.
-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여행 확대’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기회 확대’가 25.5%, ‘북한 체험’이 19.6%, ‘여러 문화 교류’가 11.8%, ‘문화 발전’이 9.8%로 나타났다. 선양 학생들의 경우 위에서 질문했던 통일의 필요성에는 경제적 이익이나 발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묻는 질문에서는 여행 기회와 범위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라본 통일의 필요성이나 국익에 대한 생각과 개인에게 미치는 통일의 기대감이 다소 차이를 확인하였다.
-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취업기회 확대’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문화 교류’가 22.9%, ‘북한 체험’이 17.1%, ‘여행 확대’가 14.3%, ‘문화 발전’이 5.7%로 이어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육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점’, ‘사업’ 등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차원의 요소를 언급한 답변이 확인됐고, ‘같은 민족의 유대감’을 제시한 답변도 존재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선양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교사들의 자문 가운데에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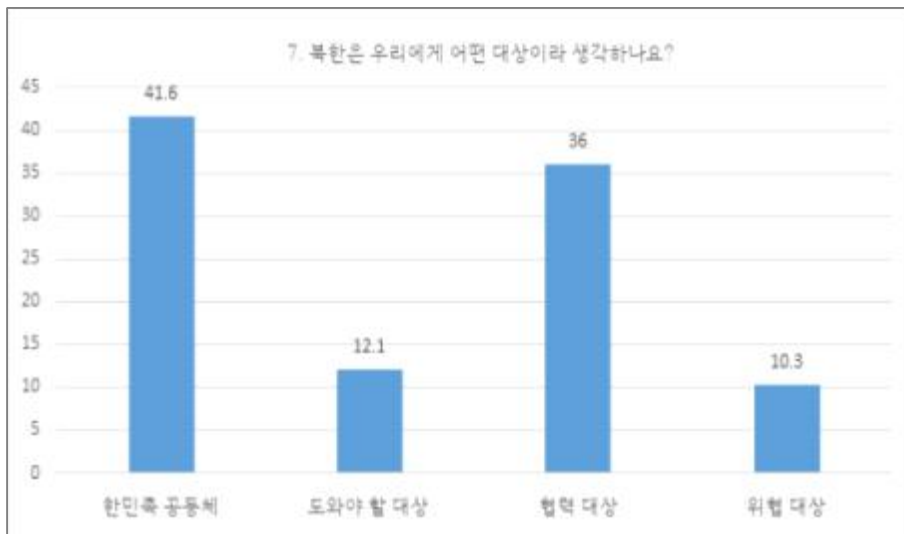
학생 A: 한반도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주춤하는 느낌이 들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군사적 비용이나 관광 문제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사(대련):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단보다는 통일이 더욱 효율적이고, 대한민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판단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인문, 사회적 비효율성 등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손실입니다. 민족을 넘어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을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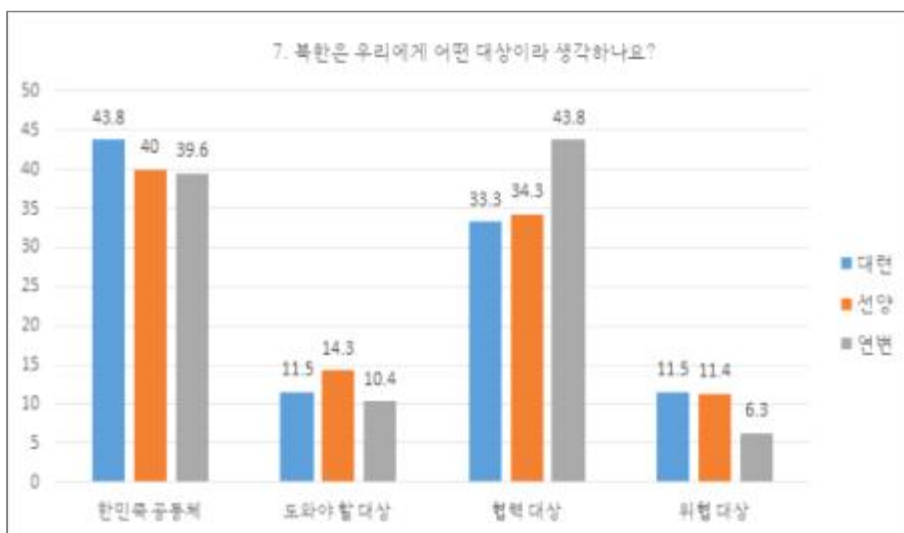
이처럼 학생과 교사 모두 통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지를 구체화하여 알려주고 학생들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된다.

3.1.2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 인식



<그림 19> 북한에 대한 인식: 전체 학생 비교



<그림 20> 북한에 대한 인식: 학교별 비교

- 북한에 대해 학생들은 ‘한민족 공동체’ 라고 인식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협력의 대상’ 이라는 응답이 36%, ‘도와야 할 대상’ 이 12.1%, ‘위협 대상’ 이 10.3%로 뒤이어 나타났다.
- 연변한국국제학교의 학생들만 북한을 ‘협력대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한민족 공동체’ 가 39.6%, ‘도와야 할 대상’ 이 10.4%, ‘위협 대상’ 이 6.3%로 이어졌다.

북한을 한민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은 포커스 그룹에 참가한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다.

학생 B: 저는 북한을 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언어도, 말하는 것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 똑같고, 문화적이거나 그런 것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같은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A: 북한하면 애증의 관계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이 가기도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북한에서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미사일 관련해서 실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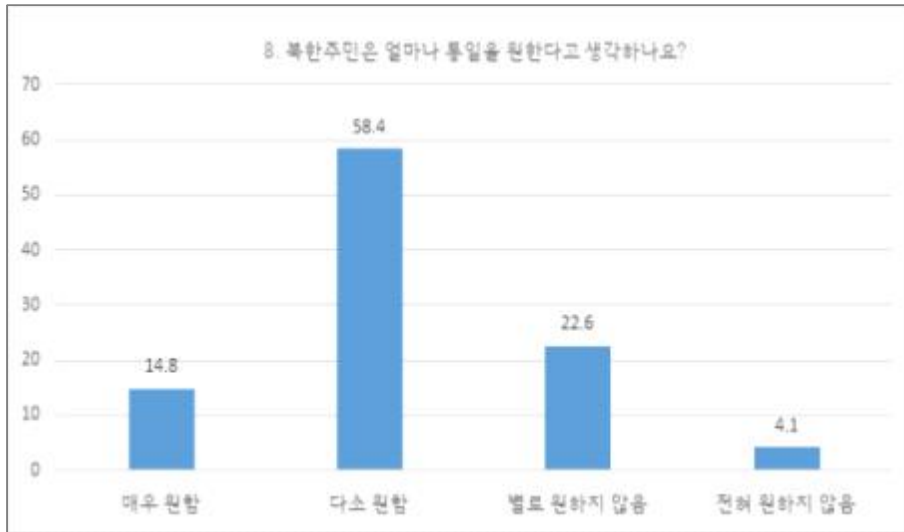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학생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북한체제와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한다는 점이다.

학생 D: 저는 약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TV 프로그램에 탈북자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체제, 정치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북한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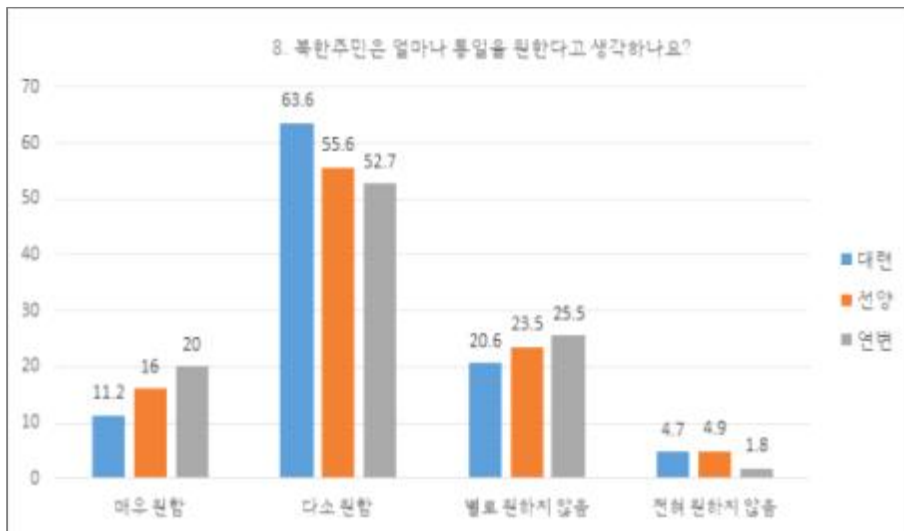
학생 A: 북한이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되게 폐쇄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또 중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보니까 꼭 (북한 체제처럼) 폐쇄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체제와 사람의 구분은 통일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일이 체제
의 결합 뿐 아니라 사람간의 교류이자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접근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주민의 통일 희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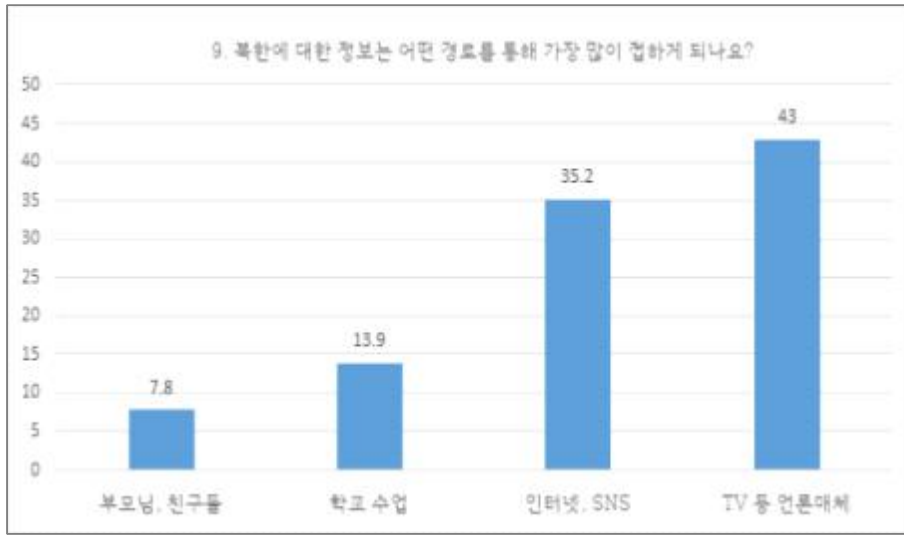
<그림 21> 북한 주민의 통일 희망여부: 전체 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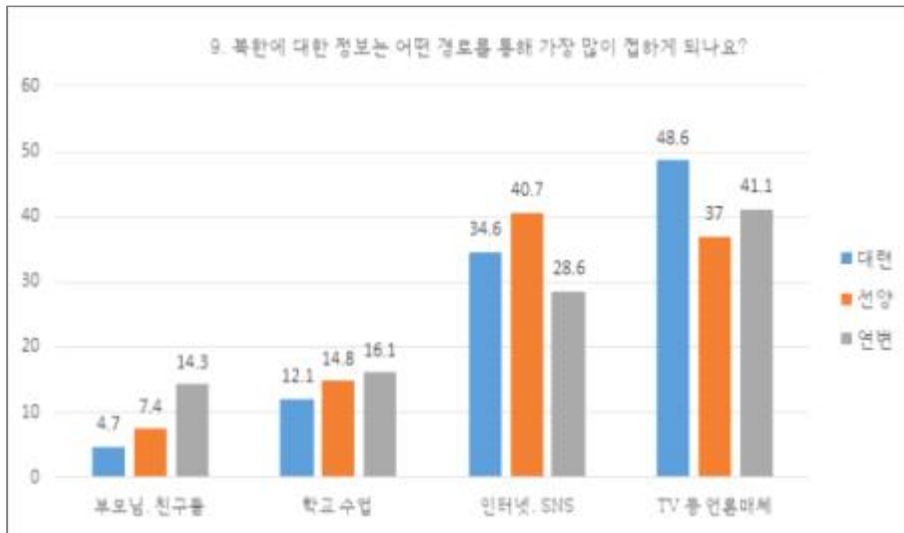
<그림 22> 북한 주민의 통일 희망여부: 학교별 비교

- 전체 학생들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 주민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다소 원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로 원하지 않음’이 22.6%, ‘매우 원함’이 14.8%, ‘전혀 원하지 않음’이 4.1%로 뒤이어 나타났다.

■ 북한 정보 유입 경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경로)



<그림 23> 북한 정보 유입 경로: 전체 학생 비교



<그림 24> 북한 정보 유입 경로: 학교별 비교

- 북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로 ‘TV 등 언론매체’ 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SNS’ 가 35.2%로 뒤이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학교 수업’ 이 13.9%, ‘부모님 및 친구들’ 이 7.8%로 나타났다.
-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르게 ‘인터넷/SNS’ 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 등 언론매체’ 가 37.0%, 학교수업이 14.8%, ‘부모님 및 친구들’ 이 7.4%로 뒤따랐다.
- 종합적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언론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의 온라인 검색을

통해 북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서의 정보 습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 ‘인터넷/유튜브/SNS 등’이라는 응답은 2019년에 40.9%로 2018년 40.2%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수업’이라는 응답은 28.6%로 2018년 25.0% 대비 3.6%p 높게 나타났다. 국내 학생들은 재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통일교육을 교과 외 시간을 활용해서도 다양하게 받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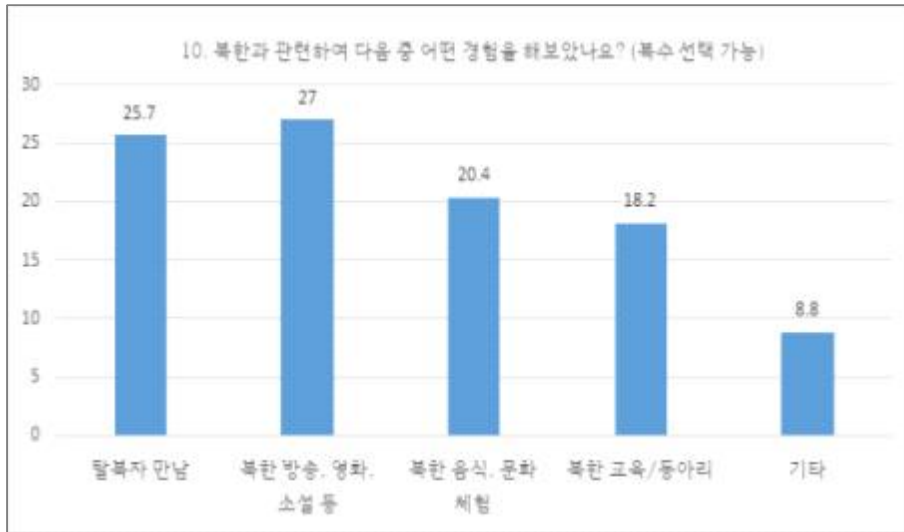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접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학생 D: 제가 주로 통일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제가 뉴스를 잘 찾아보는 편이어서 정치적인 뉴스를 찾아보거나 민주평화통일자회의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 보는 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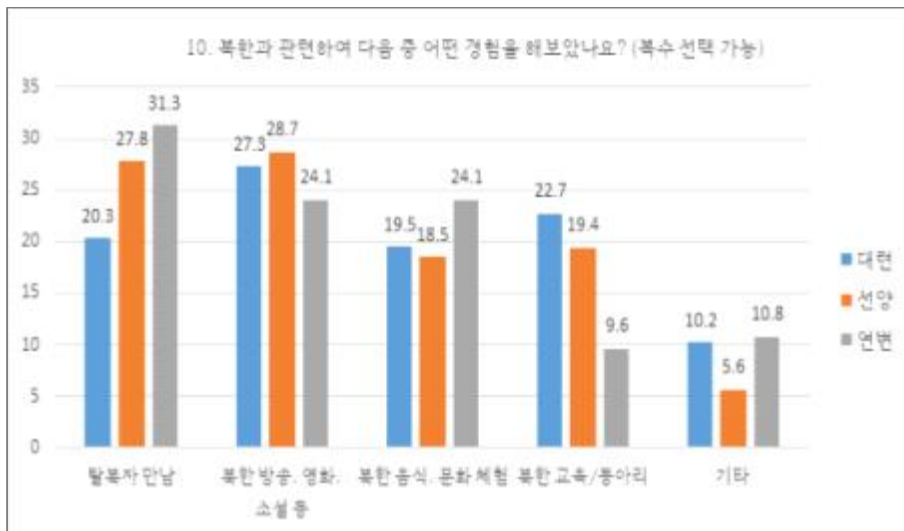
학생 E: 저는 처음 북한이라고 하면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록 한 민족이긴 하지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북한과 통일인식에 대한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감안하였을 때 북한이나 통일이 여러 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학생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여러 매체가 쏟아내는 무분별한 정보 가운데 청소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올바르게 판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차원에서도 미디어 문해력 media literacy을 주요 역량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북한 관련 경험 유형



<그림 25> 북한 관련 경험 유형: 전체 학생 비교



<그림 26> 북한 관련 경험 유형: 학교별 비교

- 전체 학생들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북한 방송, 영화, 소설 등’ 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으며, ‘탈북자 만남’ 이 25.7%, ‘북한 음식, 문화 체험’ 이 20.4%, ‘북한 교육/동아리 참여’ 가 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도 8.8%로 높게 나타났다.
- 세 학교를 비교해보면 각 학교마다 응답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련한국국제 학교 학생들의 경우 ‘북한 방송, 영화, 소설 등’ (27.3%)> ‘북한 교육/동아리’ (22.7%)> ‘탈북자 만남’ (20.3%)> ‘북한 음식, 문화 체험’ (19.5%)> ‘기

타’ (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북한 방송, 영화, 소설 등’ (28.7%)> ‘탈북자 만남’ (27.8%)> ‘북한 교육/동아리’ (19.4%)> ‘북한 음식, 문화 체험’ (18.5%)> ‘기타’ (5.6%)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탈북자 만남’ (31.3%)> ‘북한방송, 영화, 소설 등’ (24.1%)= ‘북한 음식, 문화 체험’ (24.1%)> ‘기타’ (10.8%)> ‘북한 교육/동아리’ (9.6%) 순으로 응답하였다.¹⁴⁾

- 기타 응답으로는 ‘같은 또래 북한 친구들과 친구가 된 경험’, ‘압록강을 통해 북한 건물들과 사람들을 본 경험’, ‘단동을 통해 북한을 가까이에서 본 경험’, ‘북한 중간층 주민 또는 간부의 자녀와 접촉한 경험’, ‘북한 식당 등에서 북한인 종업원을 만나본 경험’ 등 다양한 북한 출신 사람과의 접촉 경험의 답변으로 나타났으며 ‘통일 골든벨 참여’ 와 같은 학교활동도 응답되었다.¹⁵⁾
- 위 항목은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특별문항으로 학생들이 실 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마주치기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 주문 등의 간단한 대화를 해보기도 하며 생활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북한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이 지역의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선양의 학생들도 자신들이 겪은 북한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학생 C: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인터넷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듣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가까운 지역 같은 곳에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산둥지역에 가보면 압록강 상류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만 대충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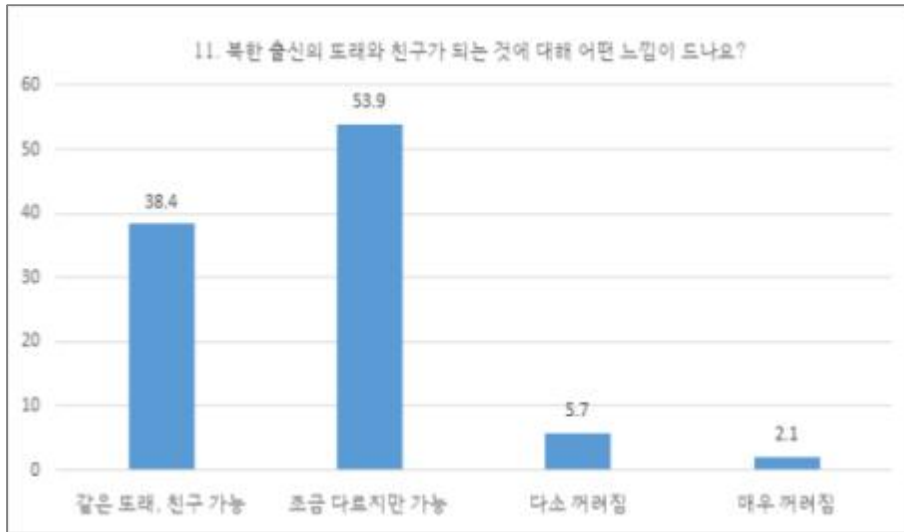
14) 설문조사 문항 중 ‘탈북자만남’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어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임에도 청소년들에게 시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IRB 심의 상의 어려움이 있어 대체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탈북자’라기 보다 중국 내 지역을 여권을 가지고 통행하거나 혹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등 실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한 경험이 있음을 상기하며 응답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15) 다소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북한 친구’라고 표현한 대상이 조선족 학생인지, 탈북자인지, 실제 북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한 결과 직접적으로 어울렸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기보다 중국 내 소재하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다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또래 친구들을 본 경험들이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기타 의견으로 이러한 응답을 기술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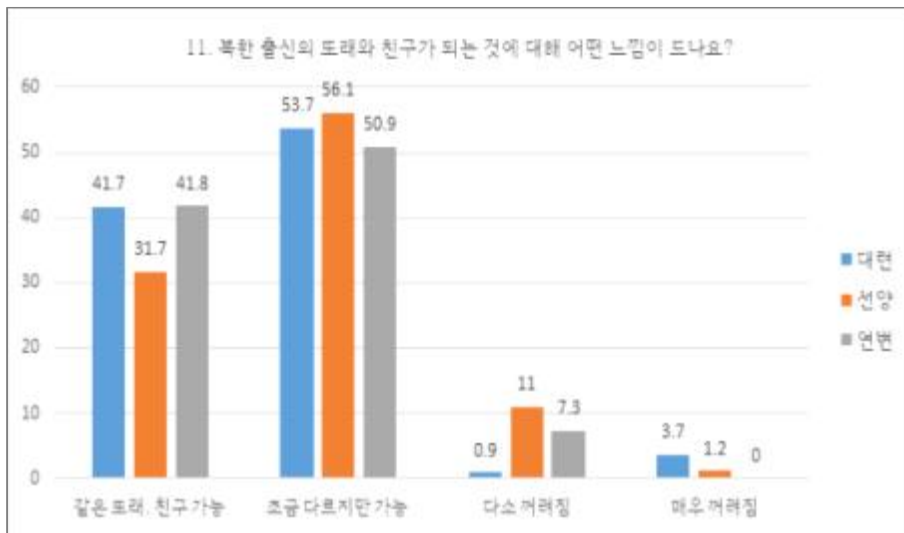
여요. (북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도 타고.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고. 저도 북한 사람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평양관이라고 북한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접경지역 학생들이 북한주민이나 문화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북한 사람과의 차이를 낫설다고 인식보다 동질감을 느끼고 통일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 가능성



<그림 27>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 가능성: 전체 학생 비교



<그림 28>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 가능성: 학교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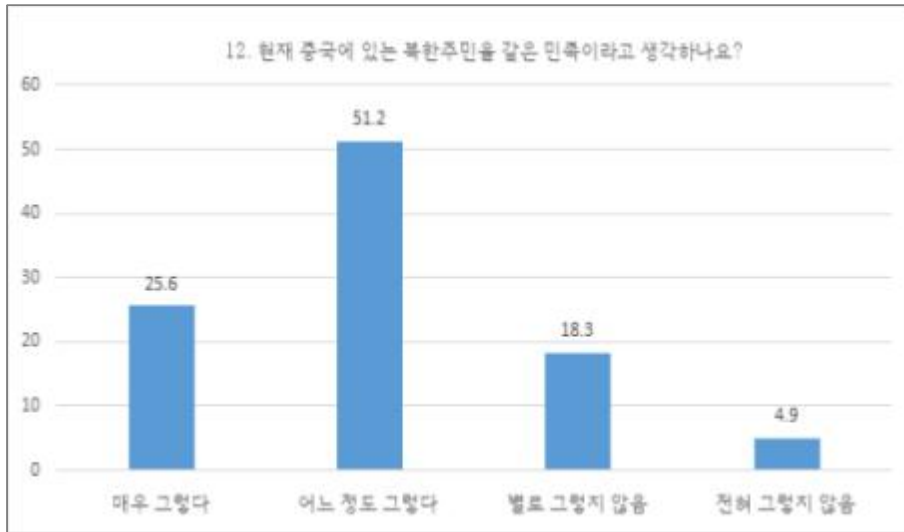
- 북한 출신 또래 친구와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전체 학생들은 ‘조금 다르지만 가능’ 하다는 응답이 53.9%로 과반수 이상 높게 나타났고, ‘같은 또래이니 친구 가능’ 하다는 응답이 38.4%, ‘다소 꺼려진다’ 는 응답이 5.7%, ‘매우 꺼려진다’ 는 응답이 2.1%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상은 선양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사람을 보고 북한 출신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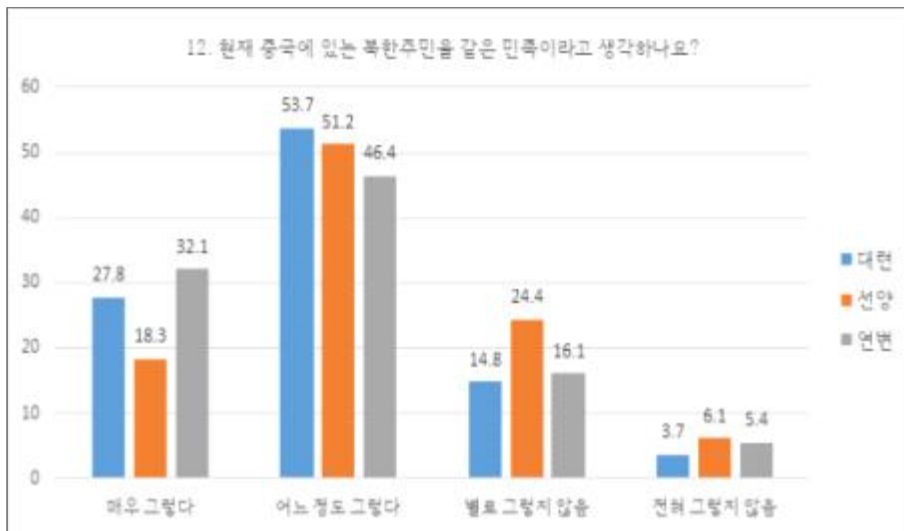
학생 D: 저희 아파트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그 친구가 부모님이나 친구랑 전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장난치면서 웃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주변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출신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 역시 나와 같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그림 2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전체 학생 비교



<그림 3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학교별 비교

- 학생들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는 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렇다’ (51.2%)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25.6%), ‘별로 그렇지 않다’ (18.3%), ‘전혀 그렇지 않다’ (4.9%)가 뒤이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주민을 한 민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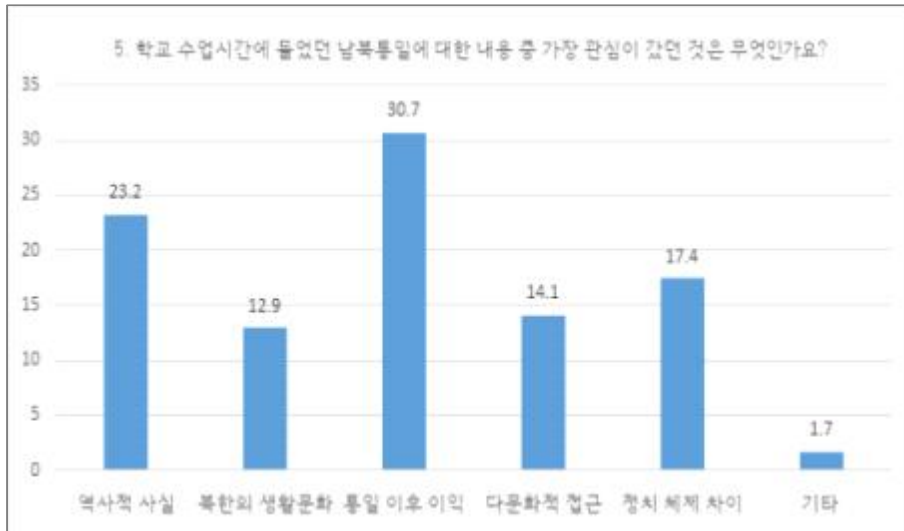
다음 학생의 인터뷰 답변 내용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학생 C: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멀리서 봤을 때는 저희랑 엄청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돼도 정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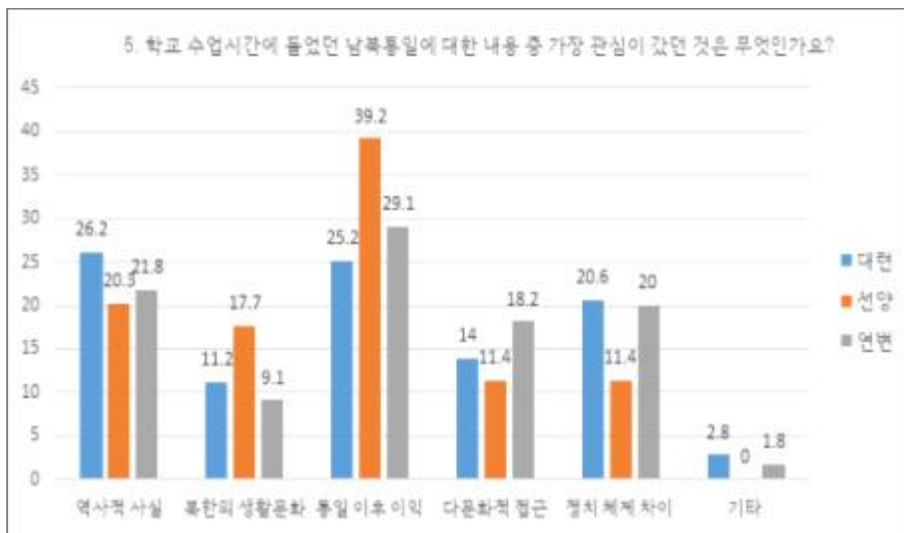
위에서 답변한 학생의 경우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느꼈으며, 직간접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았을 때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통일 이후에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은 민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음을 드러낸다.

3.1.3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심 내용



<그림 3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심 내용: 전체 학생 비교



<그림 32>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심 내용: 학교별 비교

- 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남북통일 관련 내용 중 관심이 갔던 내용으로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이익’이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분단,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23.2%, ‘정치체제의 차이’가 17.4%, ‘북한 주민, 탈북자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이 14.1%,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이 12.9%, ‘기타’가 1.7%로 나타났다.

- 학교별로 살펴보면 대련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이익’ (25.2%)> ‘정치 체제 차이’ (20.6%)> ‘다문화적 접근’ (14%)> ‘북한의 생활문화’ (11.2%)> ‘기타’ (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이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사적 사실’ (20.3%)> ‘북한의 생활문화’ (17.7%)> ‘다문화적 접근’ (11.4%)= ‘정치체제 차이’ (11.4%)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이익’이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고, ‘역사적 사실’ (21.8%)> ‘정치체제 차이’ (20%)> ‘다문화적 접근’ (18.2%)> ‘북한의 생활문화’ (9.1%)>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희망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내용으로 ‘북한의 생활 모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라는 응답이 2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¹⁶⁾ 국내 학생들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한 내용에 흥미를 보인다는 점과 달리 접경지역 학생들은 통일을 통한 실제적 이익과 분단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학생들과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북한 관련 경험의 유형이 다르다. 국내 학생들과 달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직접 본 경험이 있고, 북한 음식을 먹거나 혼한 경우로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같은 학원을 다니거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에 비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은 약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둘째, 통일관련 체험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분단 역사와 통일에 대한 관심사의 차이를 유발하였다. 국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 역시 동일

16)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학생대상 설문조사 문항 20번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생활 모습’(38.0%)>‘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22.5%)>‘통일의 이익과 비용’(13.7%)>‘우리나라의 통일정책’(12.2%)>‘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보기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현재 한국사 교육과정에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평화통일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예측 가능하나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나 교육 수요가 있는지는 파악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7학년 사회, 8학년 도덕, 9학년 역사, 10학년 한국사, 11학년 통합사회에서 통일 관련 단원에서 정규 교과내용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의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내의 교사와 대련, 선양,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사의 답변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진행할 때 ‘동영상 시청 교육’ (72.2%)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강의/설명식 교육’ (51.1%), ‘퀴즈, 통일 게임 등의 대회, 이벤트 방식’ (25.5%), ‘토론식 교육’ (16.4%), ‘외부 북한관련 강사 초빙 교육’ (10.9%),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 (8.8%), ‘동아리, 캠페인 활동 등 학생 중심 활동’ (7.0%)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내에서는 교과 외로 통일교육을 운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국내보다 교육과정의 운영이 조금 더 자유로운 재외한국학교의 특성은 통일 관련 다양한 체험 학습 및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을 지닌다. 연변한국국제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한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민족 공동체 교육을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선양한국국제학교 역시 학생회 주관의 독도 캠프,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달 행사 및 통일캠프를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한다. 재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분단 이전 함께 항일 운동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심층분석

북한 접경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및 북한 인식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ver.22.0) 프로그램이 사용됐으며, 간격척도로 이루어진 1, 3, 6, 8, 11, 12번 문항을 변수로 설정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통일문제 관심도(1번)’, ‘남북통일 필요성(3번)’,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6번)’ 그리고 ‘중국 내 북한주민 인식도(12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통일문제 관심도	남북통일 필요성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통일문제 관심도	Pearson 상관계수	1	.401**	.337**	.380**
	유의확률		.000	.000	.000
	N	263	262	261	262
남북통일 필요성	Pearson 상관계수	.401**	1	.569**	.320**
	유의확률	.000		.000	.000
	N	262	262	260	261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Pearson 상관계수	.337**	.569**	1	.290**
	유의확률	.000	.000		.000
	N	261	260	261	260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Pearson 상관계수	.380**	.320**	.290**	1
	유의확률	.000	.000	.000	
	N	262	261	260	262

<표 7>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3.2.1 통일 인식과의 상관관계

앞서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와 더불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일문제 관심도’와 ‘남북통일 필요성’,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p < 0.05$)로 나타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

명을 부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남북통일 필요성’ 과 다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장애물’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p < 0.05$)로 나타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을 부가하였다. 각 문항마다의 기술통계 결과는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 있으며 정리된 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통일문제 관심도 - 남북통일 필요성/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1=매우 관심, 2=약간 관심, 3=별로 관심 없음, 4=전혀 관심 없음의 4점 척도로 측정한 ‘통일문제 관심도’ 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남북통일 필요성’ 은 베타값 0.247($p < 0.05$)을 보였고,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는 베타값 0.264($p < 0.05$)을 보이므로 종속변수인 ‘통일문제 관심도’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는 $p = 0.077$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심도는 학생들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과 중국 내 북한주민에 대한 한민족 인식도가 높을수록 같이 높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상수)	.867	.140		6.197	.000
남북통일 필요성	.266	.073	.247	3.644	.000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091	.051	.119	1.776	.077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235	.052	.264	4.541	.000

a. 종속변수: 통일문제 관심도

<표 8> 통일문제 관심도와 변인별 상관계수

2) 남북통일 필요성 - 통일문제 관심도/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1=반드시 필요, 2=가능하다면 필요, 3=별로 필요하지 않음, 4=통일되어선 안됨의 4점 척도로 측정한 ‘남북통일 필요성’ 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는 베타값 0.491($p < 0.05$)을 보였고, ‘통일문제 관심도’ 는 베타값 0.233($p < 0.05$)을 보이므로 중

속변수 ‘남북통일 필요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은 학생들이 인지하는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와 통일문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같이 높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상수)	.781	.110		7.114	.000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347	.037	.491	9.342	.000
통일문제 관심도	.215	.049	.233	4.424	.000

a. 종속변수: 남북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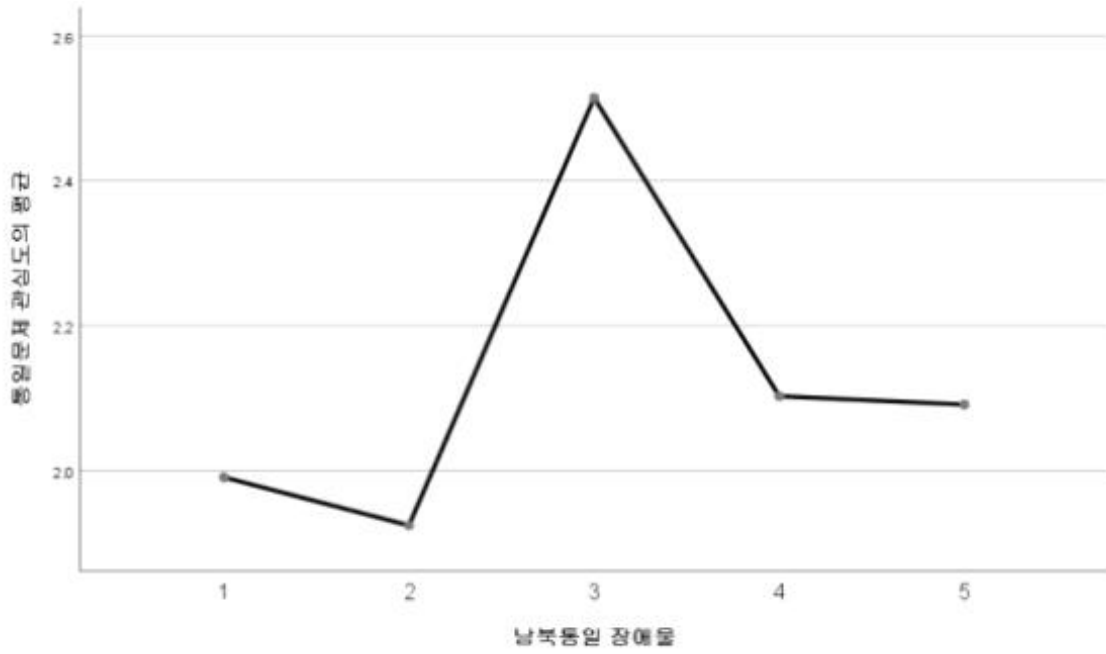
<표 9> 남북통일 필요성과 변인별 상관계수

3) 남북통일의 장애물-통일문제 관심도/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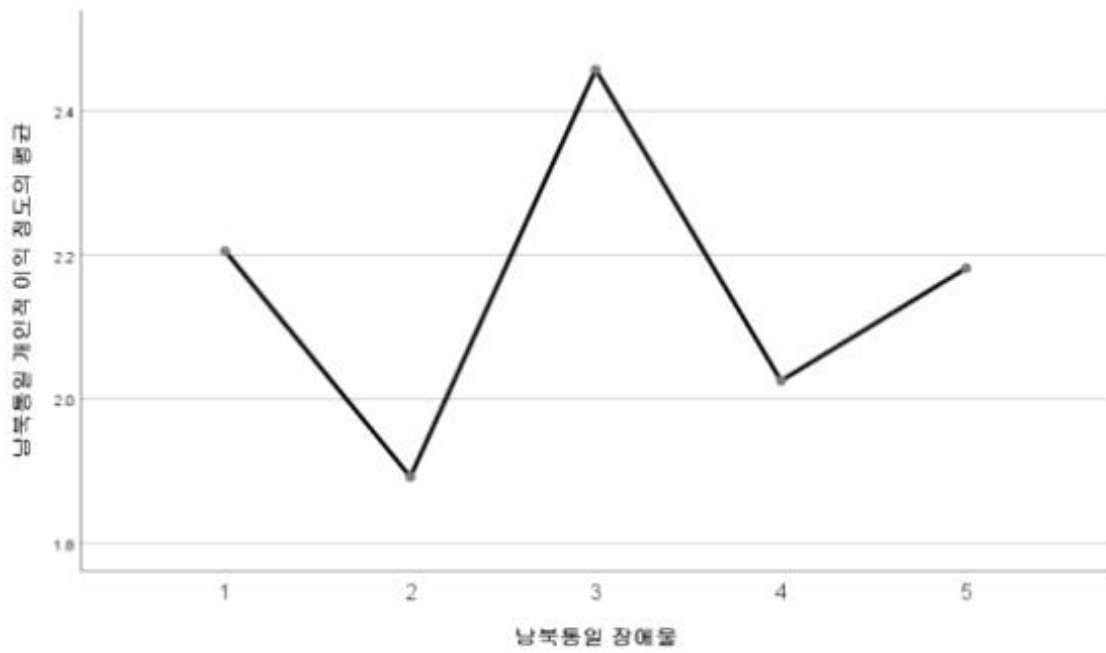
북한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남북통일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통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 중 ‘통일문제 관심도’는 $F=4.803(p<0.05)$,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는 $F=2.509(p<0.05)$ 값을 가지며, 이는 북한 접경지역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심도와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는 남북통일 장애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와 Bonferroni를 사용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남북통일 장애물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3번 선택지)’으로 선택한 학생 집단은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1번 선택지)’ 또는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2번 선택지)’로 선택한 학생 집단보다 통일문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북통일 장애물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3번 선택지)’으로 선택한 학생 집단은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2번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 집단보다 남북통일의 개인적 이익 정도에 대한 인식 평균 또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33> 북한 인식과 통일문제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 도표



<그림 34> 북한 인식과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간의 상관관계 도표

3.2.2 북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학생들의 북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일원분산분석에서는 독립변수를 ‘북한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문항은 1=한민족 공동체, 2=지원 대상, 3=협력 대상, 4=안전을 위협하는 경계 대상의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3번 선택지의 경우 긍정적 북한 인식을 나타내며, 4번은 부정적 북한 인식을 나타내므로 긍정/부정이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범주화함으로써 두 범주간의 평균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아래 제시된 분산분석 결과표에 따르면 모든 종속변수들에서 평균차이는 $p < 0.05$ 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심도’, ‘남북통일 필요성’,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북한주민의 통일 희망 여부에 대한 인식’, ‘북한 출신 또래와의 친구 가능여부’,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는 북한 인식이 긍정 또는 부정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통일문제 관심도	집단-간	12.813	3	4.271	9.119	.000
	집단-내	104.919	224	.468		
	전체	117.732	227			
남북통일 필요성	집단-간	16.798	3	5.599	14.227	.000
	집단-내	88.162	224	.394		
	전체	104.961	227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집단-간	24.246	3	8.082	10.565	.000
	집단-내	171.346	224	.765		
	전체	195.592	227			
북한주민의 통일 희망 여부	집단-간	12.685	3	4.228	9.449	.000
	집단-내	98.453	220	.448		
	전체	111.138	223			
북한 출신 또래와의 친구 가능여부	집단-간	6.288	3	2.096	4.908	.003
	집단-내	95.227	223	.427		
	전체	101.515	226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	집단-간	14.606	3	4.869	8.223	.000
	집단-내	132.037	223	.592		
	전체	146.643	226			

<표 10> 변인별 일원분산분석

앞서 실시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검증으로 Scheffe와 Bonferroni를 사용하되 분산의 동질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Games-Howell을 쓴 결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학생 집단은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생 집단보다 ‘통일문제 관심도’, ‘남북통일 필요성’, ‘남북통일 개인적 이익 정도’, ‘북한주민의 통일 희망 여부에 대한 인식’, ‘북한 출신 또래와의 친구 가능여부’, ‘중국 내 북한주민 한민족 인식도’가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3.3 소결

2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한국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과 학생들 및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접경지역학생들의 통일인식은 남한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접경지역 학생들은 북한 문화나 북한 주민들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한의 청소년들 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이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그러한 직접경험이 북한과 북한주민,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뿐 아니라 접경지역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접경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등이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기억과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이며, 교육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안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일교육의 방향 제안

1)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보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일교육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학생 C: 통일이 좋기는 한데 왜 좋은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통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학생 E: 저는 교육을 받을 때마다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하는 것보다 더 학생들은 통일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통일 이후의 상황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피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떻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 계획과 접근

학생으로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접하고 북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학생 A: 저는 학생으로서 저희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정보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C: 제가 학생으로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냥 북한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대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 같은 것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연변한국국제학교의 교사 역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균형적인 시각

통일교육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의 이점을 위주로 언급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 B: 통일 교육을 할 때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통일을 좋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제 생각에는 통일의 안 좋은 것도 같이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학생 A: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점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통일의 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생길 수 있는 사회 문제나 극복해야 할 난제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토론과 의견 공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통일관을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통일교육 프로그램 설계

4.1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원칙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포괄적 가치교육을 지향하면서 재외한국학교의 환경 특성에 맞는 요소들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중국 접경지역 재외한국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재외한국학교 통일교육의 일반적 내용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체성 차원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은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경제 활동을 위해 재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해외 국적자 간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출신배경을 지닌다. 때문에 재외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의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며, 이 정체성 함양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선양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사(선양): 통일교육의 목표는 민족 공동체성 함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 국가 개념의 통일을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재일교포, 고려족, 조선족 등으로 불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의 뿌리라는 동질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유태인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중국인이 화교라는 정체성 아래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기 출신배경이 다른 한민족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국내보다 많은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역사의식을 겸비한 민족 정체성교육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조선족 등이 함

계 생활 근거지를 삼고 있는 동북삼성은 세 부류 간 교류를 통한 최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교사(연변): 분단국가의 현실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와 장기적인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유지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즉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민족 공동체라 하여 그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부모로 둔 자녀라는 혈연 중심의 경계로 구분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도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민자 등 다문화의 형태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혈연중심의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한민족 공동체로 부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 정체성 차원 2: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고시킬 지역특유적 교육이 필요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학생들과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 특히 중국 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북한 식당 방문, 북한 주민과의 만남, 두만강 유람선 관광 등 국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 한국학생 대상의 통일교육 역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변한국국제학교의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사(연변): 해외한국학교의 통일교육은 한국 내 학교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르게 운영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처한 지리적 환경과 그 속에서 그들만이 겪는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설계가 필요하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외부공간과 글로벌 환경이라는 삼각 구도 속에서 남북한 분단과 통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영역을

공유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점을 기반으로 통일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통일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국내의 사례와 연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 소통성 차원 1: 차이 이해 및 편견 극복 교육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 문제의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나 생활, 문화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를 배양하는 관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학생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 D: 우리가 계속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E: 저는 학생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북한의 문화를 잘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편견 혹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편견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나 교육 같은 것을 국가가 더 많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향후 통일교육이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나 통일이 되면 좋은 점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북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혹은 통일이 된 대한민국에서 같은 주민으로서 생활하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고 사고나 행동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학생들의 경험과 연계하여 북한 사람들 역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가진 상대방으로서 인식하도록 하고 상호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배양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소통성 차원 2: 체계화된 탐방 프로그램 마련 필요

북한에 접경해 있는 대련, 선양, 연변 지역은 동북3성 지역으로 항일 운동의 유적지 등 역사적 장소가 다수 위치해 있는 곳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탐방하는 것은 장소에 깃들어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각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특화된 지역 사회의 현장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의 기회를 늘리고 교육 대상의 수준을 반영하여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차우규 등, 2009),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선양의 교사는 역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교사(선양): 이념의 대리전으로 분단이 되기 전 한반도는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가 된 힘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그 항일 유적지가 동북3성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 멀리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 유적지 등에서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둘러보며 역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체계화된 탐방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학생들과 달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교육기회에 속한다. 진덕규(1983)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내외적 충격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 거의 비슷한 동일 감정을 가지게 되는 성원들의 마음의 상태”를 역사적 공감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역사적인 공감을 이루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면 거기서 ‘민족’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박성춘, 이슬기, 2016, p.88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국접경 지역에 있다는 위치적 장점을 살려 여기에 맞는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이었던 과거의 사실을 인지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통일의 주인공이 남한과 북한 청소년 모두라는 점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부각시켜준다면 이는 아주 바람직한 통일교육 요소가 될 것이다.

■ 세계시민성 차원: 학생 간 교류활동의 증대 필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진

학하고 취업을 해 국제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타국의 구성원이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환경적 특성상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부터 국내 학생들보다 글로벌적 감수성을 체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혈연적 한민족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해외 각 지역에 혼재해 있는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세계 속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통일을 조망하는 시각을 키워줘야 한다.

박성춘, 이슬기(2016)은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이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한반도 내 민족공동체의 문제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역할, 인간-자연의 생태학적 관계, 그리고 역사와 미래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Merryfield & Wilson, 2005, pp.16-17; 박성춘, 이슬기, 2016, pp.92-9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 이후에도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협력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양의 교사는 학생들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사(선양):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활동은 교류활동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선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북한학생들과도 체육교류, 음악, 미술 등의 인적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서로의 동질성을 체감하는 행사를 마련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의 학생들 사이에 수학여행, 공동 체육대회 개최, 예술제 등의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청소년층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다. 상대적인 제약이나 한계가 많은 국내와 달리 재외 지역에는 재외한국학교 외에 조선족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재학하기 때문에 이들 간 교류 활동을 마련하고 상호 간 토론과 이해 과정을 통해 남북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4.2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체계

■ 통일교육 체계도 정립 : 가치교육 지향

통일인식 개선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은 홍보, 접촉,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중 교육 활동은 통일친화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길러주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역량을 계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즉, 청소년들이 통일 상황 속에서 이질 집단 간의 소통 역량을 키워가며 이를 통해 새롭게 진화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 있다. 통일한국으로의 진전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유도하며 다양한 구성원이 일체감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내적 기반을 확대해 가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은 차츰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인식 개선의 교육적 경로인 통일교육은 청소년의 통일감수성, 문화다양성, 반편견 등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피교육자가 상호문화적 자질을 갖추고 그 결과로써 사회통합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적인 상황으로 본다. 용어상으로 통일감수성, 문화다양성, 반편견 등은 <내용 요소>, 통일 역량은 <자질 요소>, 사회통합은 <성과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목표 성과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목표 자질	한국인 정체성, 상호문화 역량, 글로벌 역량	
	↑	↑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감수성 제고 * 한국인의 공통성 이해 * 남북한 주민/사회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교육 * 반편견 교육 * 글로벌 시민성교육
	↑	↑
교육 명칭	재외한국학교 통일교육 (학교교육)	
교육 대상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표 11> 통일인식 개선 교육 개념도

본 연구진은 통일교육을 구성하는 <표 11>의 각 용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념을 규정하는 바이다.

<내용 요소>

① 통일감수성

: 서로 다른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형성한 인지적 정서적 특징이나 행동 경향성을 말한다. 통일감수성은 남북한 집단과 통일 상황에서 타 집단의 관점을 존중하고 낮은 현상을 적절히 수용하는 개인적 인식과 민감성을 나타낸다(참조, 이재경 등, 2010).

② 문화다양성

: 문화는 고유한 전통에 따라 형성된 공통의 사고, 행동, 생활방식으로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비록 나의 것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현상적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 아니라 여러 집단 공존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가치의식을 지향하는 용어이다.

③ 반편견

: 어떤 대상(인물, 사물, 현상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혹은 태도)을 표출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해 치우침 없이 생각하고 응대하는 개방적 입장을 말한다.

<자질 요소>

① 한국인 정체성

: 한국인의 범위 속에 공유하는 공통적인 사고 및 행동방식, 같은 역사적 맥락, 정서적 일체감을 신뢰하고 이를 본인과 한국인 전체의 기본 바탕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인 정체성은 피아를 혈연적으로 구분하는 변별적 요소(胞)라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與) 문화적 혼종(Hybridity) 까지도 포함하는 초민족적 단위로 확장된다.

② 상호문화적 역량¹⁷⁾

: 인종, 국적, 지역, 종교, 장애, 나이, 젠더 등의 차이를 위계적 질서로 보지 않으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나 작용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와 타인의 가치를 함께 높여 가는 자질을 뜻한다. 상호문화 역량은 지식, 태도 및

17)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다문화’와 ‘상호문화’를 구분하여, ‘다문화’는 대개 대상적 사실을 지칭할 때(예: 다문화 사회), ‘상호문화’는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표현할 때(예: 상호문화 역량) 사용한다.

마음가짐, 행동 자질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이다.

③ 글로벌 역량

: 한국인 정체성과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재외동포 차세대는 태생적으로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자라며 미래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큰 다양성 가치는 세계 global와 한국 national과 현지 local가 교차하는 지점, 즉 글로벌 Glonacal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¹⁸⁾ 그들이 지닌 글로벌의 세 구성요소, 즉 글로벌 역량, 한민족 의식, 현지 경험의 조화는 미래에 더욱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키워 줄 토대가 될 것이다.

<성과 요소>

① 사회통합

: “사회구성원이 보편적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규범 등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양계민, 2006, p.22). 통일한국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러 집단들이 하나의 공간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성과요소로서의 사회통합은 구성원의 자질요소가 자연스럽게 이뤄내는 결과라고 보면, 실제 통일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교육 내용(=내용 요소)으로 어떤 자질(=자질 요소)을 개발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질 요소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구성원 집단 사이의 건전한 관계 형성과 소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타문화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의사소통 맥락에 적절하게 행동 및 소통하면서 그들과 유익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H. J. Lüsebrink 2005, p.9). 어떤 사람이 다른 배경을 지닌 파트너와 상호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집단에 통용되는 사회규범과 행동규칙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과 파트너의 목표를 함께 실현하고, 상호행위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때 그는 상호문화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인식’이라는 용어는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응대

18) 원래 글로벌 Glonacal 개념은 글로벌 시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분석틀에서 유래하였다. 글로벌 Glocal이 개별 국가와 세계라는 이원구조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외국의 모범 사례를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반면에, 글로벌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현재 서있는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다.

하는 일반적 태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통일인식 개선 활동에서도 다른 내용 요소(감수성, 반편견 등)를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외한국학교에서 통일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적 경로는 상호문화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통일감수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기에, 청소년의 통일인식 수준을 평가하려 할 때 상호문화 역량도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사실에서 보면, 통일교육 활동도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호문화 역량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필자도 상호문화 역량 개념을 중심에 두고 통일교육의 내부 구성요소를 탐색하려 한다.

상호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존의 연구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 (안상수 등, 2012)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민무숙 등, 2012)에서는 구성요소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양성 차원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우리 것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 문화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는 성향
관계성 차원	주류 집단과 이주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에 연관된 축으로서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
보편성 차원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 혹은 문화적 가치의 인정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나 인종적 배경에 차이를 두지 않고 보편적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성향

<표 12> 상호문화 역량 구성요소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세 구성요소를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위한 <8가지 교육목표>로 재구조화 하여 이를 통일인식 개선 교육의 기본적 수업 내용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목적으로 설정된 세 차원과 8개 하부 요소를 교육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언급된 3개의 구성요소를 재외한국학교의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형태로 명칭을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다양성 차원은 ‘정체성’ 으로 전환
: 재외 청소년이 한국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통일감수성을 갖춤.
- ② 관계성 차원은 ‘소통성’ 으로 전환
: 재외 청소년이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

③ 보편성 차원은 ‘세계시민성’ 으로 전환

: 재외 청소년이 통일감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적 가치를 추구함.

교육적 가치 형태로 전환한 것의 하부 내용요소는 통일인식 조사의 포맷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하였다.

A. 정체성 가치

- A1 [남북한 사회] 우리는 남북한 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A2 [공통성 인식] 남북한 사람들의 민족적 역사적 공통성을 공유한다.
- A3 [반편견 교육] 북한 주민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지 않는다.

B. 소통성 가치

- B4 [적극적 교류]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 B5 [의사소통 능력]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을 배려하며 의사소통을 수행한다.
- B6 [관계의 가치] 열린 사고와 관계 맺기를 통해 나의 시각을 넓힌다.

C. 세계시민성 가치

- C7 [인간의 소중함]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함을 안다.
- C8 [글로벌 마인드] 세계인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이러한 역량들을 중심에 둔 교육내용은 단순히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 일반에게 다른 집단에 대한 존중과 자기주도적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가치교육 내지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지닌다. 남북 상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상호문화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 있다. 전체 8차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시	목표 역량	목표	주요 내용
	교육 주제		
1	A: 정체성 가치	*우리는 남북한 사람들이 한 민족 정체성 속에서 함께 살아감을 안다. *북한주민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환영하고 공감과 공존 의지를 실천한다.	*북한주민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남북 일체감 속 평화통일의 가치 공유하기 *역할놀이로 통일감수성 지수 높이기 *우리 모두를 위한 통일 실천하기
	A1 남북한 사회		

2	A: 정체성 가치	*남북한 사람들의 유사성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같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일체감을 형성한다.	*한국과 북한의 공통점 탐색하기 *다름에 대한 존중 태도 기르기 *한민족 공통의 역사 유적지 탐방하기 *한국인 정체성 공유에 대해 토론하기
	A2 공통성 의식		
3	A: 정체성 가치	*북한 주민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는다.	*우리 사회 속 차별에 대해 인식하기 *편견과 선입견 극복을 위한 토론 *우리가 해결하는 남북한 고민 1 *북한이탈주민과 생활하기/인터뷰
	A3 반편견 교육		
4	B: 소통성 가치	*북한 주민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인간존중을 통한 신뢰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안다.	*인연의 소중함 깨닫기 *가상적 북한 생활 체험계획 세우기 *우리가 해결하는 남북한 고민 2 *개인 간 교류에서 국가 간 교류로 확대
	B4 적극적 교류		
5	B: 소통성 가치	*북한 주민들과 바르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를 갖춘다.	*타 집단 구성원과의 바른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 역량 키우기 *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의사소통 *타인과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기
	B5 의사소통 능력		
6	B: 소통성 가치	*다른 세계나 언어와 관계를 맺으며 창의성을 키워간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낯선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동일한 내용을 남북한 언어로 표현해 보기 *남북한 언어 관계에서 창의적 용어 만들기 *남북한 장점 합해 보기
	B6 관계의 가치		
7	C: 세계시민성 가치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동일함을 인식한다.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춘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느낌 *차별적 태도를 극복할 방안 찾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통일 한국에서 행복나누기 캠페인
	C7 인간의 소중함		
8	C: 세계시민성 가치	*통일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될 비전과 역량을 갖춘다. *통일시대에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글로벌 리더의 특성 인식하기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나의 꿈 설계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이해 *지구촌 의식 갖추기 활동
	C8 글로벌 마인드		

<표 13> 재외한국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8차시 구성

4.3 교안 사례: ‘정체성 가치’ , ‘세계시민성 가치’ 부분

4.3.1 수업 설계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통일인식 개선은 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연령의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단계의 학생들은 대단히 예민한 감수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균형 잡힌 사고, 정서, 행동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통일교육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성숙의 문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고집, 편견, 울타리를 형성할 위험성이 큰 때이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같은 계기교육을 통해 보편적 인간에 대한 존중심과 더불어 다른 배경을 지닌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이해 교육을 넘어 인성교육이나 가치교육의 차원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한국학교 청소년을 겨냥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절실히 요구된다.

통일인식 개선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와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은 교사 개인에 따라 발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활동이 동질적 수준의 교육효과를 낳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데 기여한다. 교육 표준화는 운영 절차뿐 아니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결과에 대해 공통된 의식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여 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교육 프로그램은 통일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 재외한국학교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북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상호이해의 태도를 길러주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역량을 계발시켜준다. 즉, 우리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환경 속에서 이질적 집단 간의 소통 역량을 키워가며 통일의식을 통해 새롭게 진화할 바탕을 넓혀가도록 하려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 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하는 수업의 외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재외한국학교 중학교 1, 2학년을 목표 그룹으로 상정한다.

- 2) C. 세계시민성 역량을 주제로 2차시를 다룬다.
- 3) 각 차시는 90분 단위로 진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45분씩 2회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배치한다.
- 4) 차시의 구조와 시간 배당은 다음과 같다.

(가) 도입 (5분)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벼운 질문을 하거나 생각 거리를 던져줌으로써 강의 주제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보여주며 주제로 안내한다.
(나) 전개 I (40분) : 강의 주제 내 핵심 내용 1을 다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펴보기 I (10분) : 핵심 내용 1과 관련된 자료를 보거나 동영상을 청취하며 강의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 인식하기 I (10분) : 핵심 내용 1의 구체적 모습, 원인, 특성 등을 인식한다. ◇ 생각나누기 I (20분) :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활동지를 사용한다.
(다) 전개 II (40분) : 강의 주제 내 핵심 내용 2를 다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펴보기 II (10분) : 핵심 내용 2와 관련된 자료를 보거나 동영상을 청취하며 강의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 인식하기 II (10분) : 핵심 내용 2의 구체적 모습, 원인, 특성 등을 인식한다. ◇ 생각나누기 II (20분) :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활동지를 사용한다.
(라) 정리 (5분)
전체 강의내용을 다시 정리해주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준다.

<표 14>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의 약안


본 수업 안은 약안 형태로 제공한다. 통일교육 진행 교사는 첨부된 약안을 기반으로 해당 차시의 중심 내용과 단계를 인지하고 본인의 교육 목적에 맞는 강의 형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에 강의 흐름이 정형화되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4.3.2 수업 진행을 위한 교안사례

1) 정체성 역량 부분

※ 3차시 강의 교안 : 정체성 가치 - 반편견 교육

강의 제목	편견을 없애야 하나가 된다.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인식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인지하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춘다. 				
강의 형태	PPT를 활용한 강의, 토론, 활동	대상	중학교 1, 2학년	시간 90분 (2시간)	
사용 기자재	빔 프로젝터, 마이크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참고자료, 활동지, 동영상				
학습단계	주요내용			소요 시간	비 고
도 입	동 기 유 발	❖ 다른 것과 틀린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남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인식하기 - 나는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혹은 차별을 한 적 있는 지 떠올려보기 - 남북한 주민 사이에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5분	교사용 PPT
		❖ 일상 속 차별적인 표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동영상 자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Vw2ppvf_K78 -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적 표현을 알아보고 이 속에는 어떤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 지 파악하기 		10분	동영상 자료 (문화다양성 영상)
전 개	인 식 하 기	❖ 우리 사회 속 차별에 대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소감 말해보기 (동영상을 보고 내가 들었던 차별적 표현 떠올리기) - 성차별, 인종차별, 문화차이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기 		10분	교사용 PPT

생각 나누기 I	<p>❖ 편견과 선입견 극복을 위한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활동]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해시태그로 모아보기  <p>하나의 해시태그 별로 사례 3개 이상씩 적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활동] 주어진 주제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하기 <p>토론 1: 편견과 선입견은 왜 생기는 걸까? 토론 2: 편견과 선입견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토론 3: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p>	20분	교사용 PPT 활동지
살펴보기 II	<p>❖ 우리가 해결하는 남북한 고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동영상자료 시청하기 <p>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2&limit=20&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hd=TM_20_30&id=20188&ty=&vw=img&odr=ne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지 인식하기 	10분	동영상 자료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인식하기 II	<p>❖ 북한이탈주민을 나와 같은 친구로 인정하는 태도 기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소감 말하기. <p>*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만일 우리 학교에 북한에서 온 친구가 등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없이 바라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청소년이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인식하기 	15분	교사용 PPT

생각 나누기	❖ 북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상상하기 - 북한이탈학생과 어울릴 때 겪게 될 언어차이를 예상해보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사전 만들기 * <보니하니 톡톡 통일퀴즈북> 참조 (알쏭달쏭, 북한 말 대사전 참조하여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정리해보기) - 북한 친구의 관점에서 공감해보기	15분	교사용 PPT 활동지
정리하기	❖ 바람직한 대한민국 만들기 -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 없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 함양하기	5분	교사용 PPT

<표 15> 3차시 강의 교안

2) 세계시민성 역량 부분

※ 7차시 강의 교안 : 세계시민성 가치 - 인간의 소중함

강의 제목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			
강의 목표	-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동일함을 이해한다. -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춘다.			
강의 형태	PPT를 활용한 강의, 토론, 활동	대상	중학교 1, 2학년	시간 90분 (2시간)
사용 기자재	빔 프로젝터, 마이크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참고자료, 활동지, 동영상			
학습단계	주요내용			소요 시간
동기유발	❖ 인간 삶의 송고함 - 어떤 조건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동일함을 알기 -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임을 알기 - 남북 주민이 서로 존엄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함			5분
				교사용 PPT

		인식하기 - 남북한 주민 사이 서로 상처를 준 사례 생각해 보기		
전 개 나 누 기 	살 펴 보 기	❖ 자기와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들 - 친구들과 동영상 자료 시청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FWimXHUFtZQ - 자기와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의 사례와 심리 파악하기	10분	동영상 자료 (박찬호 무릎팍 도사)
	인 식 하 기 	❖ 차별받는 사람들의 느낌 - 시청소감 말해보기 (동영상을 보고 박찬호 선수 심정을 느껴 봄) - 나라면 냄새나는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야기 해보기 - 타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말해보기	10분	교사용 PPT
	생 각 나 누 기 	❖ 차별적 태도를 극복할 방안 찾기 - 공익광고 그림 <모두 살색입니다> 감상하기 (이 광고가 알리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 - 글 <수영이의 얼굴색> 감상하기 (수영이가 흑인처럼 보인 것을 기분 나빠한다면 이는 왜 잘못된 것인가) - 인간에게서 피부색이나 생김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토론하기	20분	교사용 PPT 활동지
	살 펴 보 기 	❖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 친구들과 동영상자료 두가지 중 하나 시청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nXW9xRV4LdM http://www.youtube.com/watch?v=pme7Gik24yw - 인간은 모두 존엄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앞장 서기	10분	동영상 자료 (이태석 신부 이야기)
	인 식	❖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 기르기 - 시청소감 말하기.	15분	교사용 PPT

	하 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태석 신부의 삶이 특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느님은 교회와 학교 중 무엇을 먼저 지어실까? *이태석 신부가 행복한 이유는? - 우리나라 내에서 비슷한 사례 찾아보기 (비천한 신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허준) - 그들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기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인식하기 		
	생 각 나 누 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사회에서 ‘행복 나누기’ 캠페인 - 학생들이 반차별, 인간존중, 사랑, 나눔 등을 강조하는 캠페인 문구를 만들어 발표함 * 공익광고 그림 <여기여기 붙어라> 참조 (이 광고가 알리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 - 북한 친구를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15분	교사용 PPT 활동지
정 리	마 무 리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나는 통일한국 전도사 - 나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을 이상하다거나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 보기 - 앞으로 남북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통일한국 전도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갖기 	5분	교사용 PPT

<표 16> 7차시 강의 교안

※ 8차시 강의 교안 : 세계시민성 가치 - 글로벌 마인드

강의 제목	세계 시민으로서 나의 비전 키우기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을 지향하며 글로벌 리더가 될 비전과 역량을 갖춘다. - 통일한국을 지향하며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강의 형태	PPT를 활용한 강의, 토론, 활동	대상	초등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시간	90분 (2시간)
사용 기자재	빔 프로젝터, 마이크				
준비물	파워포인트, 강의 참고자료, 활동지, 동영상				
학습단계	주요내용			소요 시간	비 고

도 입	동 기 유 발	❖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나 - 내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들 때는 언제인가? - 미래에 나의 활동영역은 한국인가, 세계인가? - 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5분	교사용 PPT
전 개 I II	살 펴 보 기 I	❖ 지구촌 활동 인물을 통해 본 글로벌 리더의 꿈 - 친구들과 동영상자료 시청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nIter3mIM7Y -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 살펴보기	10분	동영상 자료 (반기문 총장 만화)
	인 식 하 기 I	❖ 글로벌 리더의 특성 인식하기 - 시청소감 말해보기 (동영상 속에 나타난 인물의 주요 특성 인식하기) - 반기문 총장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외국어 소통 능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생각해 보기	10분	교사용 PPT
	생 각 나 누 기 I	❖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나의 꿈 설계 -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한국인 찾아보기 (국제기구, 스포츠계, 연예계, 봉사활동 등) - 미래 나의 자화상에 대해 생각 나누기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나의 가상 명함 만들기, 국제무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자질들 생각 나누기 (글로벌 마인드, 외국어 능력, 인간애 등)	20분	교사용 PPT 활동지
	살 펴 보 기 II	❖ 지구촌 문제 : 기후변화 - 친구들과 동영상자료 시청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wCTXue7V6j4 - 지구촌에는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지 알아보기 (가난, 질병, 환경, 기후, 문맹 등)	10분	동영상 자료 (지구촌 문제)

인 식 하 기 II	<p>❖ 지구촌에 대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민족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p>❖ <지구촌 문제 해결 방안> 인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구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10분	교사용 PPT
	생 각 나 누 기 II	<p>❖ <지구촌 의식 갖추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가상 통합화폐 디자인 해보기 (디자인에 지구촌을 상징하는 내용들 넣기) - 발표 및 지구촌 의식 강화 	20분
정 리 하 기	<p>❖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그동안 세계시민으로서 활동 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기 -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정리하기 	5분	교사용 PPT

<표 17> 8차시 강의 교안

5. 결 론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대련, 연변,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세 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통일’에 대한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선진국 도약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인륜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인지 다소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정치체제의 차이를 1순위로 대답했다는 점에서는 국내 학생들과 동일하나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통일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거라는 인식은 국내 학생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형성하게 되는 글로벌적 시각이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북한 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 국내외 학생들 모두 언론매체나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재외한국학교의 학생들은 ‘북한 관련 경험’ 항목에서 북한 사람을 주변에서 마주치거나 북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등 국내 학생들이 하기 힘든 직접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가장 관심 있었던 내용에 대해 대련, 선양, 연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단이나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도도 강하게 드러났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도는 중국 지역 내에서 무역을 하러 통행증을 보유한 채 중국을 오가는 북한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외화 벌이를 위해 일하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과의 만남 경험을 보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접촉 경험은 재외한국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도 동일한 경제적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자극하였으며, 더 나아가 남과 북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는 인식

형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재외 지역의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국내보다 자주 받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재외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은 국내에서보다 역사적 내용과 더욱 밀접한 연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은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더불어 균형적인 시각으로 통일을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향성에 따라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원칙으로 <정체성>, <소통성>, <세계시민성>의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한다. 첫 번째 정체성은 혈연 위주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두 번째 소통성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상호문화 교육, 관계적 가치를 청소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다양성 교육을 지향하며, 세 번째 세계시민성은 재외한국학교 학생과 국내 학생 간, 재외한국학교 학생과 국제학교 학생 간 교류 활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시민 의식을 갖추고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남북통일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연착륙하고 더 나아가 보다 발전된 시민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려 한다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다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 하며 다양성 속의 조화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데 매진해야 한다.

통일인식 개선의 효과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문제해결형 통일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 인류 보편을 위한 통일한국의 역할로 아젠더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이제 통일교육 정책은 북한주민의 수용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통일교육 요소를 활용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가치교육 측면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진화적 보편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낯선 것과 상호작용 하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새로운 사고모형을 창출하는 능력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주민 구성원들을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 혹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결핍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그와 함께 나타나고 사라진다. 모든 사람의 비석에는 하나의 세계사가 존재한다.” 는 독일 시인 하이네의 말처럼(Heine 2010), 인

간은 탄생과 더불어 이미 자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사적 인물이 된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믿으며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말과 가슴으로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본질이기에 이런 큰 틀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구섭. (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비교교육연구**, 22, 45-69.
-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3-41.
- 권오현. (2005). 독일통일의 경험에 따른 남,북한 학교 외국어교육 통합 방안. **독어교육**, 34, 7-42.
- 권오현. (2006).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초,중등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32, 271.
- 박명규, 김병로, 김병조, 박정란, 정은미, 이상신, 서호철, 은기수, 박영호. (2010). **통일의식조사 2007-2009 [누적자료]**.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박보람. (2018).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 분석. **윤리연구**, 121, 141-163.
- 박성춘, 이슬기. (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 파주: 집문당.
- 박성춘, 조영달, 권오현, 윤여탁, 박성혁, 김병연, 김태환, 배영애. (2015). **통일 후 남북 초·중등학교 통합과 통일 실험학교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
- 박정란. (2013). 바람직한 통일미래사회. **월간북한**, (496), 69-76.
- 박주화. (2018).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Retrieved from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8454/1/0001484788>).pdf.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종헌. (2017). 남북한 통일의 도전과 청소년의 통일인식. **윤리연구**, 1(117), 25-50.
- 서유석. (2014). 재미교포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월간북한**, (507), 85-89.
- 서현진. (2017).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 간 통일 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29(1), 93-128.
- 송두록. (2014). 남북 교육통합 대비, 북한체험학교 만들자. **월간북한**, (506), 44-50.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정진경, 강혜원.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연구보고 08-R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현철, 조철호. (2018). 통일교육 평가기준에 따른 시대적 통찰과 통일교육 방향 모색. **평화학연구**, 19(4), 289-309.
- 이상걸. (2015). **재일한인 차세대의 정체성과 통일의식 연구 -민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이성희. (2013). **북한의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제2차 통일실험학교 포럼 발표자료집. 서울.
- 이정환. (2017). **1980년대 이후 청소년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 <한민족통일문제제전> 작품집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재경, 박언주, 김효정, 조영주. (2010).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 모듈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혜영. (2016). 휴전선 접경지역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69-88.
- 전형권. (2015). 차세대 재외동포 통일교육 실태와 통일의식 제고 방안. **평화학연구**, 16(1), 61-86.
- 차우규, 박인옥. (2009). **통일안보 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연구과제.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 추병완. (2012). **다문화 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편견, 고정관념, 차별**. 서울: 하우.
- 한만길, 강구섭, 권성아, 박재운, 양승실, 조정아. (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연구보고 RR2012-07). 한국교육개발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서울: 통일교육원.
- Akashe-Böhme, F. (2000). *In Geteilten Welten: Fremdheitserfahrungen zwischen Migration und Partizipation*. Frankfurt: Brandes & Apsel.
- Allport, G. W.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Duden. (2000).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Mannheim-Leipzig-Wien-Zurich: Dudenverlag, 6.
- Heine, H. (2014). *Reise von München nach Genua*. BoD-Books on Demand.
- Hessen, J. (1950). *Lehrbuch der Philosophie*, Bd. I: Wissenschaftslehre.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Kaase, M. (1999). *Stichwort „Innere Einheit“*. Weidenfeld, Werner/Korte, Karl-Rudolf (H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NY: Campus, 454-466.

Lüsebrink, H. J. (2005).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Stuttgart: J. B. Metzler.

Merryfield, M. M., & Wilson, A. H. (2005). *Social studies and the world: Teaching global perspectives* (No. 103).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

부 록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1) 매우 많음	(2) 약간 있음	1+2	(3) 별로 없음	(4) 전혀 없음	3+4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19	70	89	15	4	19	108
		백분율	17.6%	64.8%	82.4	13.9%	3.7%	17.6%	100.0%
	선양	빈도	12	48	60	19	3	22	82
		백분율	14.6%	58.5%	73.1	23.2%	3.7%	26.9%	100.0%
	연변	빈도	14	32	46	10	1	11	57
		백분율	24.6%	56.1%	80.7	17.5%	1.8%	19.3%	100.0%
전체	빈도	45	150	195	44	8	52	247	
	백분율	18.2%	60.7%	78.9	17.8%	3.2%	21%	100.0%	

<표 18> 1번 문항 응답 비율

			2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1) 하나의 국가	(2) 경제협력 강화	(3) 가치, 문화 융합	(4) 사람, 물자의 이동	(5) 기타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62	13	13	17	3	108
		백분율	57.4%	12.0%	12.0%	15.7%	2.8%	100.0%
	선양	빈도	57	5	8	8	3	81
		백분율	70.4%	6.2%	9.9%	9.9%	3.7%	100.0%
	연변	빈도	36	7	3	7	4	57
		백분율	63.2%	12.3%	5.3%	12.3%	7.0%	100.0%
전체	빈도	155	25	24	32	10	246	
	백분율	63.0%	10.2%	9.8%	13.0%	4.1%	100.0%	

<표 19> 2번 문항 응답 비율

3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반드시 필요	(2) 가능하다면 필요	1+2	(3) 별로 필요 하지 않음	(4) 통일되어선 안됨	3+4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20	67	87	18	3	21	108
		백분율	18.5%	62.0%	80.5%	16.7%	2.8%	19.5%	100.0%
	선 양	빈도	16	52	68	12	1	13	81
		백분율	19.8%	64.2%	84%	14.8%	1.2%	16%	100.0%
	연 변	빈도	20	30	50	7	0	7	57
		백분율	35.1%	52.6%	87.7%	12.3%	0.0%	12.3%	100.0%
전체	빈도	56	149	205	37	4	41	246	
	백분율	22.8%	60.6%	83.4%	15.0%	1.6%	16.6%	100.0%	

<표 20> 3번 문항 응답 비율

3-1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같은 민족	(2) 선진국 되기 위해	(3) 이산가족 고통 해결	(4) 핵, 전쟁 위험 제거	(5) 북한주민 삶의 질	(6) 기타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25	18	15	17	6	3	84
		백분율	29.8%	21.4%	17.9%	20.2%	7.1%	3.6%	100.0%
	선 양	빈도	14	18	12	17	2	4	67
		백분율	20.9%	26.9%	17.9%	25.4%	3.0%	6.0%	100.0%
	연 변	빈도	18	11	6	7	5	0	47
		백분율	38.3%	23.4%	12.8%	14.9%	10.6%	0.0%	100.0%
전체	빈도	57	47	33	41	13	7	198	
	백분율	28.8%	23.7%	16.7%	20.7%	6.6%	3.5%	100.0%	

<표 21> 3-1번 문항 응답 비율

3-2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사회문화 차이	(3) 경제적 부담	(4) 통일 이후 사회문제	(5) 주변국 정세 불안	(6) 기타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4	1	6	8	1	0	20
		백분율	20.0%	5.0%	30.0%	40.0%	5.0%	0.0%	100.0%
	선 양	빈도	2	1	5	3	1	1	13
		백분율	15.4%	7.7%	38.5%	23.1%	7.7%	7.7%	100.0%
	연 변	빈도	2	0	1	4	0	0	7
		백분율	28.6%	0.0%	14.3%	57.1%	0.0%	0.0%	100.0%
전체	빈도	8	2	12	15	2	1	40	
	백분율	20.0%	5.0%	30.0%	37.5%	5.0%	2.5%	100.0%	

<표 22> 3-2번 문항 응답 비율

4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3) 통일 비용	(4) 반대와 무관심	(5) 기타	(6) 기타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48	30	13	13	2	106
		백분율	45.3%	28.3%	12.3%	12.3%	1.9%	100.0%
	선 양	빈도	27	24	15	9	5	80
		백분율	33.8%	30.0%	18.8%	11.3%	6.3%	100.0%
	연 변	빈도	24	8	5	15	4	56
		백분율	42.9%	14.3%	8.9%	26.8%	7.1%	100.0%
전체	빈도	99	62	33	37	11	242	
	백분율	40.9%	25.6%	13.6%	15.3%	4.5%	100.0%	

<표 23> 4번 문항 응답 비율

5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던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1) 역사적 사실	(2) 북한의 생활문화	(3) 통일 이후 이익	(4) 다문화적 접근	(5) 정치 체제 차이	(6) 기타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28	12	27	15	22	3	107
		백분율	26.2%	11.2%	25.2%	14.0%	20.6%	2.8%	100.0%
	선양	빈도	16	14	31	9	9	0	79
		백분율	20.3%	17.7%	39.2%	11.4%	11.4%	0.0%	100.0%
	연변	빈도	12	5	16	10	11	1	55
		백분율	21.8%	9.1%	29.1%	18.2%	20.0%	1.8%	100.0%
전체	빈도	56	31	74	34	42	4	241	
	백분율	23.2%	12.9%	30.7%	14.1%	17.4%	1.7%	100.0%	

<표 24> 5번 문항 응답 비율

6 남북통일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큰 이익	(2) 약간 이익	1+2	(3) 별로 이익 안됨	(4) 전혀 이익 안됨	3+4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27	38	65	31	11	42	107
		백분율	25.2%	35.5%	60.7%	29.0%	10.3%	39.3%	100.0%
	선양	빈도	23	29	52	25	4	29	81
		백분율	28.4%	35.8%	64.2%	30.9%	4.9%	35.8%	100.0%
	연변	빈도	25	13	38	18	1	19	57
		백분율	43.9%	22.8%	66.7%	31.6%	1.8%	33.4%	100.0%
전체	빈도	75	80	155	74	16	90	245	
	백분율	30.6%	32.7%	63.3%	30.2%	6.5%	36.7%	100.0%	

<표 25> 6번 문항 응답 비율

6-1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취업기회 확대	(2) 여행 확대	(3) 문화 발전	(4) 북한 체험	(5) 여러 문화 교류	(6) 기타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15	14	7	16	10	1	63
		백분율	23.8%	22.2%	11.1%	25.4%	15.9%	1.6%	100.0%
	선 양	빈도	13	15	5	10	6	2	51
		백분율	25.5%	29.4%	9.8%	19.6%	11.8%	3.9%	100.0%
	연 변	빈도	11	5	2	6	8	3	35
		백분율	31.4%	14.3%	5.7%	17.1%	22.9%	8.6%	100.0%
전체	빈도		39	34	14	32	24	6	149
	백분율		26.2%	22.8%	9.4%	21.5%	16.1%	4.0%	100.0%

<표 26> 6-1번 문항 응답 비율

7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나요?								
			(1) 한민족 공동체	(2) 도와야 할 대상	(3) 협력 대상	1+2+3	(4) 위협 대상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42	11	32	85	11	96
		백분율	43.8%	11.5%	33.3%	88.6%	11.5%	100.0%
	선 양	빈도	28	10	24	62	8	70
		백분율	40.0%	14.3%	34.3%	88.6%	11.4%	100.0%
	연 변	빈도	19	5	21	45	3	48
		백분율	39.6%	10.4%	43.8%	93.8%	6.3%	100.0%
전체	빈도		89	26	77	192	22	214
	백분율		41.6%	12.1%	36.0%	89.7%	10.3%	100.0%

<표 27> 7번 문항 응답 비율

8 북한주민은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원함	(2) 다소 원함	1+2	(3) 별로 원하지 않음	(4) 전혀 원하지 않음	3+4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12	68	80	22	5	27	107
		백분율	11.2%	63.6%	74.8%	20.6%	4.7%	25.3%	100.0%
	선 양	빈도	13	45	58	19	4	23	81
		백분율	16.0%	55.6%	71.6%	23.5%	4.9%	28.4%	100.0%
	연 변	빈도	11	29	40	14	1	15	55
		백분율	20.0%	52.7%	72.7%	25.5%	1.8%	27.3%	100.0%
전체	빈도	36	142	178	55	10	65	243	
	백분율	14.8%	58.4%	73.2%	22.6%	4.1%	26.7%	100.0%	

<표 28> 8번 문항 응답 비율

9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나요?							
			(1) 부모님, 친구들	(2) 학교 수업	(3) 인터넷, SNS	(4) TV 등 언론매체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5	13	37	52	107
		백분율	4.7%	12.1%	34.6%	48.6%	100.0%
	선 양	빈도	6	12	33	30	81
		백분율	7.4%	14.8%	40.7%	37.0%	100.0%
	연 변	빈도	8	9	16	23	56
		백분율	14.3%	16.1%	28.6%	41.1%	100.0%
전체	빈도	19	34	86	105	244	
	백분율	7.8%	13.9%	35.2%	43.0%	100.0%	

<표 29> 9번 문항 응답 비율

10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해보았나요? (복수 선택 가능)								
			(1) 탈북자 만남	(2) 북한 방송, 영화, 소셜 등	(3) 북한 음식, 문화 체험	(4) 북한 교육/ 동아리	(5) 기타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26	35	25	29	13	128
		백분율	20.3%	27.3%	19.5%	22.7%	10.2%	100.0%
	선양	빈도	30	31	20	21	6	108
		백분율	27.8%	28.7%	18.5%	19.4%	5.6%	100.0%
	연변	빈도	26	20	20	8	9	83
		백분율	31.3%	24.1%	24.1%	9.6%	10.8%	100.0%
전체	빈도	82	86	65	58	28	319	
	백분율	25.7%	27%	20.4%	18.2%	8.8%	100.0%	

<표 30> 10번 문항 응답 비율

11 북한 출신의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1) 같은 또래, 친구 가능	(2) 조금 다른 지만 가능	1+2	(3) 다소 꺼려짐	(4) 매우 꺼려짐	3+4	전체
거주지역	대련	빈도	45	58	103	1	4	5	108
		백분율	41.7%	53.7%	95.4%	0.9%	3.7%	4.6%	100.0%
	선양	빈도	26	46	72	9	1	10	82
		백분율	31.7%	56.1%	87.8%	11.0%	1.2%	12.2%	100.0%
	연변	빈도	23	28	51	4	0	4	55
		백분율	41.8%	50.9%	92.7%	7.3%	0.0%	7.3%	100.0%
전체	빈도	94	132	226	14	5	19	245	
	백분율	38.4%	53.9%	92.3%	5.7%	2.1%	7.8%	100.0%	

<표 31> 11번 문항 응답 비율

12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1+2	(3) 별로 그렇 지 않음	(4) 전혀 그렇 지 않음	3+4	전체
거 주 지 역	대 련	빈도	30	58	88	16	4	20	108
		백분율	27.8%	53.7%	81.5%	14.8%	3.7%	18.5%	100.0%
	선 양	빈도	15	42	57	20	5	25	82
		백분율	18.3%	51.2%	69.5%	24.4%	6.1%	30.5%	100.0%
	연 변	빈도	18	26	44	9	3	12	56
		백분율	32.1%	46.4%	78.5%	16.1%	5.4%	21.5%	100.0%
전체	빈도	63	126	189	45	12	57	246	
	백분율	25.6%	51.2%	76.8%	18.3%	4.9%	23.2%	100.0%	

<표 32> 12번 문항 응답 비율

■ 성별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1) 매우 많음	(2) 약간 있음	1+2	(3) 별로 없음	(4) 전혀 없음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1	69	90	22	3	25	115
		백분율	18.3%	60.0%	78.3	19.1%	2.6%	21.7	100.0%
	남 자	빈도	24	81	105	22	5	27	132
		백분율	18.2%	61.4%	79.6	16.7%	3.8%	20.5	100.0%
전체	빈도	45	150	195	44	8	52	247	
	백분율	18.2%	60.7%	78.9	17.8%	3.2%	21%	100.0%	

<표 33> 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2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1) 하나의 국가	(2) 경제협력 강화	(3) 가치, 문화 융합	(4) 사람, 물자의 이동	(5)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78	7	10	18	1	114
		백분율	68.4%	6.1%	8.8%	15.8%	0.9%	100.0%
	남 자	빈도	77	18	14	14	9	132
		백분율	58.3%	13.6%	10.6%	10.6%	6.8%	100.0%
전체	빈도	155	25	24	32	10	246	
	백분율	63.0%	10.2%	9.8%	13.0%	4.1%	100.0%	

<표 34> 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3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반드시 필요	(2) 가능하다면 필요	1+2	(3) 별로 필요 하지 않음	(4) 통일되어선 안됨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0	81	101	14	0	14	115
		백분율	17.4%	70.4%	87.8	12.2%	0.0%	12.2	100.0%
	남 자	빈도	36	68	104	23	4	27	131
		백분율	27.5%	51.9%	79.4	17.6%	3.1%	20.7	100.0%
전체	빈도	56	149	205	37	4	41	246	
	백분율	22.8%	60.6%	83.4%	15.0%	1.6%	16.6%	100.0%	

<표 35> 3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3-1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같은 민족	(2) 선진국 되기 위해	(3) 이산가족 고통 해결	(4) 핵, 전쟁 위험 제거	(5) 북한주민 삶의 질	(6)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3	19	22	25	5	1	95
		백분율	24.2%	20.0%	23.2%	26.3%	5.3%	1.1%	100.0%
	남 자	빈도	34	28	11	16	8	6	103
		백분율	33.0%	27.2%	10.7%	15.5%	7.8%	5.8%	100.0%
전체		빈도	57	47	33	41	13	7	198
		백분율	28.8%	23.7%	16.7%	20.7%	6.6%	3.5%	100.0%

<표 36> 3-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3-2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사회문화 차이	(3) 경제적 부담	(4) 통일 이후 사회문제	(5) 주변국 정세 불안	(6)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	1	3	5	1	1	13
		백분율	15.4%	7.7%	23.1%	38.5%	7.7%	7.7%	100.0%
	남 자	빈도	6	1	9	10	1	0	27
		백분율	22.2%	3.7%	33.3%	37.0%	3.7%	0.0%	100.0%
전체		빈도	8	2	12	15	2	1	40
		백분율	20.0%	5.0%	30.0%	37.5%	5.0%	2.5%	100.0%

<표 37> 3-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4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3) 통일 비용	(4) 반대와 무관심	(5) 기타	(6) 기타
성 별	여 자	빈도	50	31	16	11	5	113
		백분율	44.2%	27.4%	14.2%	9.7%	4.4%	100.0%
	남 자	빈도	49	31	17	26	6	129
		백분율	38.0%	24.0%	13.2%	20.2%	4.7%	100.0%
전체		빈도	99	62	33	37	11	242
		백분율	40.9%	25.6%	13.6%	15.3%	4.5%	100.0%

<표 38> 4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5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던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1) 역사적 사실	(2) 북한의 생활문화	(3) 통일 이후 이익	(4) 다문화적 접근	(5) 정치 체제 차이	(6)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30	16	30	17	18	0	111
		백분율	27.0%	14.4%	27.0%	15.3%	16.2%	0.0%	100.0%
	남 자	빈도	26	15	44	17	24	4	130
		백분율	20.0%	11.5%	33.8%	13.1%	18.5%	3.1%	100.0%
전체		빈도	56	31	74	34	42	4	241
		백분율	23.2%	12.9%	30.7%	14.1%	17.4%	1.7%	100.0%

<표 39> 5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6 남북통일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큰 이익	(2) 약간 이익	1+2	(3) 별로 이익 안됨	(4) 전혀 이익 안됨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31	46	77	35	2	37	114
		백분율	27.2%	40.4%	67.6	30.7%	1.8%	32.5	100.0%
	남 자	빈도	44	34	78	39	14	53	131
		백분율	33.6%	26.0%	59.6	29.8%	10.7%	40.5	100.0%
전체		빈도	75	80	155	74	16	90	245
		백분율	30.6%	32.7%	63.3%	30.2%	6.5%	36.7%	100.0%

<표 40> 6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6-1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취업기회 확대	(2) 여행 확대	(3) 문화 발전	(4) 북한 체험	(5) 여러 문화 교류	(6)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1	12	6	19	13	3	74
		백분율	28.4%	16.2%	8.1%	25.7%	17.6%	4.1%	100.0%
	남 자	빈도	18	22	8	13	11	3	75
		백분율	24.0%	29.3%	10.7%	17.3%	14.7%	4.0%	100.0%
전체		빈도	39	34	14	32	24	6	149
		백분율	26.2%	22.8%	9.4%	21.5%	16.1%	4.0%	100.0%

<표 41> 6-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7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나요?								
			(1) 한민족 공동체	(2) 도와야 할 대상	(3) 협력 대상	1+2+3	(4) 위협 대상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37	14	41	92	5	97
		백분율	38.1%	14.4%	42.3%	94.8	5.2%	100.0%
	남 자	빈도	52	12	36	100	17	117
		백분율	44.4%	10.3%	30.8%	85.5	14.5%	100.0%
전체		빈도	89	26	77	192	22	214
		백분율	41.6%	12.1%	36.0%	89.7%	10.3%	100.0%

<표 42> 7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8 북한주민은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원함	(2) 다소 원함	1+2	(3) 별로 원하지 않음	(4) 전혀 원하지 않음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17	71	88	24	3	27	115
		백분율	14.8%	61.7%	76.5	20.9%	2.6%	23.5	100.0%
	남 자	빈도	19	71	90	31	7	38	128
		백분율	14.8%	55.5%	70.3	24.2%	5.5%	29.7	100.0%
전체		빈도	36	142	178	55	10	65	243
		백분율	14.8%	58.4%	73.2%	22.6%	4.1%	26.7%	100.0%

<표 43> 8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9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나요?								
			(1) 부모님, 친구들	(2) 학교 수업	(3) 인터넷, SNS	(4) TV 등 언론매체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9	19	42	44	114	
		백분율	7.9%	16.7%	36.8%	38.6%	100.0%	
	남 자	빈도	10	15	44	61	130	
		백분율	7.7%	11.5%	33.8%	46.9%	100.0%	
전체		빈도	19	34	86	105	244	
		백분율	7.8%	13.9%	35.2%	43.0%	100.0%	

<표 44> 9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0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해보았나요? (복수 선택 가능)								
			(1) 탈북자 만남	(2) 북한 방송, 영화, 소셜 등	(3) 북한 음식, 문화 체험	(4) 북한 교육/ 동아리	(5) 기타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33	48	22	32	13	148
		백분율	22.3%	32.4%	14.9%	21.6%	8.8%	100
	남 자	빈도	49	38	43	26	15	171
		백분율	28.7%	22.2%	25.1%	15.2%	8.8%	100
전체		빈도	82	86	65	58	28	319
		백분율	25.7%	27%	20.4%	18.2%	8.8%	100.0%

<표 45> 10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1 북한 출신의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1) 같은 또래, 친구 가능	(2) 조금 다른 지만 가능	1+2	(3) 다소 꺼려짐	(4) 매우 꺼려짐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39	67	106	9	0	9	115
		백분율	33.9%	58.3%	92.2	7.8%	0.0%	7.8	100.0%
	남 자	빈도	55	65	120	5	5	10	130
		백분율	42.3%	50.0%	92.3	3.8%	3.8%	7.6	100.0%
전체		빈도	94	132	226	14	5	19	245
		백분율	38.4%	53.9%	92.3%	5.7%	2.1%	7.8%	100.0%

<표 46> 11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12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1+2	(3) 별로 그렇 지 않음	(4) 전혀 그렇 지 않음	3+4	전체
성 별	여 자	빈도	23	65	88	24	3	27	115
		백분율	20.0%	56.5%	76.5	20.9%	2.6%	23.5	100.0%
	남 자	빈도	40	61	101	21	9	30	131
		백분율	30.5%	46.6%	77.1	16.0%	6.9%	22.9	100.0%
전체		빈도	63	126	189	45	12	57	246
		백분율	25.6%	51.2%	76.8%	18.3%	4.9%	23.2%	100.0%

<표 47> 12번 문항 성별 응답 비율

■ 학년별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1)	(2)	1+2	(3)	(4)	3+4	전체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학 년	중1	빈도	10	13	23	1	3	4	27
		백분율	37.0%	48.1%	85.1	3.7%	11.1%	14.8	100.0%
	중2	빈도	6	18	24	5	0	5	29
		백분율	20.7%	62.1%	82.8	17.2%	0.0%	17.2	100.0%
	중3	빈도	8	29	37	11	2	13	50
		백분율	16.0%	58.0%	74	22.0%	4.0%	26	100.0%
	고1	빈도	6	32	38	5	2	7	45
		백분율	13.3%	71.1%	84.4	11.1%	4.4%	15.5	100.0%
	고2	빈도	8	25	33	11	0	11	44
		백분율	18.2%	56.8%	75	25.0%	0.0%	25	100.0%
	고3	빈도	7	33	40	11	1	12	52
		백분율	13.5%	63.5%	77	21.2%	1.9%	23.1	100.0%
전체	빈도	45	150	195	44	8	52	247	
	백분율	18.2%	60.7%	78.9	17.8%	3.2%	21%	100.0%	

<표 48> 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2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1)	(2)	(3)	(4)	(5)	전체
			하나의 국가	경제협력 강화	가치, 문화 융합	사람, 물자의 이동	기타	
학 년	중1	빈도	16	2	3	4	2	27
		백분율	59.3%	7.4%	11.1%	14.8%	7.4%	100.0%
	중2	빈도	21	3	0	4	1	29
		백분율	72.4%	10.3%	0.0%	13.8%	3.4%	100.0%
	중3	빈도	32	6	5	5	1	49
		백분율	65.3%	12.2%	10.2%	10.2%	2.0%	100.0%
	고1	빈도	30	6	4	4	1	45
		백분율	66.7%	13.3%	8.9%	8.9%	2.2%	100.0%
	고2	빈도	26	3	7	8	0	44
		백분율	59.1%	6.8%	15.9%	18.2%	0.0%	100.0%
	고3	빈도	30	5	5	7	5	52
		백분율	57.7%	9.6%	9.6%	13.5%	9.6%	100.0%
전체	빈도	155	25	24	32	10	246	
	백분율	63.0%	10.2%	9.8%	13.0%	4.1%	100.0%	

<표 49> 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3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반드시 필요	(2) 가능하다면 필요	1+2	(3) 별로 필요 하지 않음	(4) 통일되어선 안됨	3+4	전체		
학 년	중1	빈도	5	17	22	3	1	4	26	
		백분율	19.2%	65.4%	84.6	11.5%	3.8%	15.3	100.0%	
	중2	빈도	9	18	27	2	0	2	29	
		백분율	31.0%	62.1%	93.1	6.9%	0.0%	6.9	100.0%	
	중3	빈도	8	33	41	9	0	9	50	
		백분율	16.0%	66.0%	82	18.0%	0.0%	18	100.0%	
	고1	빈도	11	27	38	6	1	7	45	
		백분율	24.4%	60.0%	84.4	13.3%	2.2%	15.5	100.0%	
	고2	빈도	8	31	39	5	0	5	44	
		백분율	18.2%	70.5%	88.7	11.4%	0.0%	11.4	100.0%	
	고3	빈도	15	23	38	12	2	14	52	
		백분율	28.8%	44.2%	73	23.1%	3.8%	26.9	100.0%	
전체	빈도	56	149	205	37	4	41	246		
	백분율	22.8%	60.6%	83.4%	15.0%	1.6%	16.6%	100.0%		

<표 50> 3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3-1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같은 민족	(2) 선진국 되기 위해	(3) 이산가족 고통 해결	(4) 핵, 전쟁 위험 제거	(5) 북한주민 삶의 질	(6) 기타	전체		
학 년	중1	빈도	5	3	5	7	1	0	21	
		백분율	23.8%	14.3%	23.8%	33.3%	4.8%	0.0%	100.0%	
	중2	빈도	10	7	2	5	2	1	27	
		백분율	37.0%	25.9%	7.4%	18.5%	7.4%	3.7%	100.0%	
	중3	빈도	14	8	9	8	0	1	40	
		백분율	35.0%	20.0%	22.5%	20.0%	0.0%	2.5%	100.0%	
	고1	빈도	8	10	6	8	1	3	36	
		백분율	22.2%	27.8%	16.7%	22.2%	2.8%	8.3%	100.0%	
	고2	빈도	7	13	7	8	3	0	38	
		백분율	18.4%	34.2%	18.4%	21.1%	7.9%	0.0%	100.0%	
	고3	빈도	13	6	4	5	6	2	36	
		백분율	36.1%	16.7%	11.1%	13.9%	16.7%	5.6%	100.0%	
전체	빈도	57	47	33	41	13	7	198		
	백분율	28.8%	23.7%	16.7%	20.7%	6.6%	3.5%	100.0%		

<표 51> 3-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3-2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사회문화 차이	(3) 경제적 부담	(4) 통일 이후 사회문제	(5) 주변국 정세 불안	(6) 기타	전체
학 년	중1	빈도	0	0	2	2	0	0	4
		백분율	0.0%	0.0%	50.0%	50.0%	0.0%	0.0%	100.0%
	중2	빈도	0	0	0	1	0	1	2
		백분율	0.0%	0.0%	0.0%	50.0%	0.0%	50.0%	100.0%
	중3	빈도	1	0	4	4	0	0	9
		백분율	11.1%	0.0%	44.4%	44.4%	0.0%	0.0%	100.0%
	고1	빈도	1	1	1	3	1	0	7
		백분율	14.3%	14.3%	14.3%	42.9%	14.3%	0.0%	100.0%
	고2	빈도	1	0	3	1	0	0	5
		백분율	20.0%	0.0%	60.0%	20.0%	0.0%	0.0%	100.0%
	고3	빈도	5	1	2	4	1	0	13
		백분율	38.5%	7.7%	15.4%	30.8%	7.7%	0.0%	100.0%
전체	빈도	8	2	12	15	2	1	40	
	백분율	20.0%	5.0%	30.0%	37.5%	5.0%	2.5%	100.0%	

<표 52> 3-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4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치체제 차이	(2)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3) 통일 비용	(4) 반대와 무관심	(5) 기타	(6) 기타
학 년	중1	빈도	4	6	6	8	1	25
		백분율	16.0%	24.0%	24.0%	32.0%	4.0%	100.0%
	중2	빈도	14	6	2	6	1	29
		백분율	48.3%	20.7%	6.9%	20.7%	3.4%	100.0%
	중3	빈도	19	13	7	5	5	49
		백분율	38.8%	26.5%	14.3%	10.2%	10.2%	100.0%
	고1	빈도	18	16	3	6	1	44
		백분율	40.9%	36.4%	6.8%	13.6%	2.3%	100.0%
	고2	빈도	22	9	8	2	2	43
		백분율	51.2%	20.9%	18.6%	4.7%	4.7%	100.0%
	고3	빈도	22	12	7	10	1	52
		백분율	42.3%	23.1%	13.5%	19.2%	1.9%	100.0%
전체	빈도	99	62	33	37	11	242	
	백분율	40.9%	25.6%	13.6%	15.3%	4.5%	100.0%	

<표 53> 4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5 학교 수업시간에 들었던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1) 역사적 사실	(2) 북한의 생활문화	(3) 통일 이후 이익	(4) 다문화적 접근	(5) 정치 체제 차이	(6) 기타	전체
학 년	중1	빈도	4	4	5	5	6	0	24
		백분율	16.7%	16.7%	20.8%	20.8%	25.0%	0.0%	100.0%
	중2	빈도	5	6	10	2	5	1	29
		백분율	17.2%	20.7%	34.5%	6.9%	17.2%	3.4%	100.0%
	중3	빈도	15	9	14	5	6	0	49
		백분율	30.6%	18.4%	28.6%	10.2%	12.2%	0.0%	100.0%
	고1	빈도	13	5	18	4	4	1	45
		백분율	28.9%	11.1%	40.0%	8.9%	8.9%	2.2%	100.0%
	고2	빈도	8	1	14	11	8	1	43
		백분율	18.6%	2.3%	32.6%	25.6%	18.6%	2.3%	100.0%
	고3	빈도	11	6	13	7	13	1	51
		백분율	21.6%	11.8%	25.5%	13.7%	25.5%	2.0%	100.0%
전체	빈도	56	31	74	34	42	4	241	
	백분율	23.2%	12.9%	30.7%	14.1%	17.4%	1.7%	100.0%	

<표 54> 5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6 남북통일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큰 이익	(2) 약간 이익	1+2	(3) 별로 이익 안됨	(4) 전혀 이익 안됨	3+4	전체
학 년	중1	빈도	8	13	21	4	2	6	27
		백분율	29.6%	48.1%	77.7	14.8%	7.4%	22.2	100.0%
	중2	빈도	14	6	20	9	0	9	29
		백분율	48.3%	20.7%	69	31.0%	0.0%	31	100.0%
	중3	빈도	13	12	25	19	5	24	49
		백분율	26.5%	24.5%	51	38.8%	10.2%	49	100.0%
	고1	빈도	15	20	35	8	2	10	45
		백분율	33.3%	44.4%	77.7	17.8%	4.4%	22.2	100.0%
	고2	빈도	13	15	28	13	2	15	43
		백분율	30.2%	34.9%	65.1	30.2%	4.7%	34.9	100.0%
	고3	빈도	12	14	26	21	5	26	52
		백분율	23.1%	26.9%	50	40.4%	9.6%	50	100.0%
전체	빈도	75	80	155	74	16	90	245	
	백분율	30.6%	32.7%	63.3%	30.2%	6.5%	36.7%	100.0%	

<표 55> 6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6-1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취업기회 확대	(2) 여행 확대	(3) 문화 발전	(4) 북한 체험	(5) 여러 문화 교류	(6) 기타	전체
학 년	중1	빈도	2	3	1	9	3	2	20
		백분율	10.0%	15.0%	5.0%	45.0%	15.0%	10.0%	100.0%
	중2	빈도	5	4	1	6	1	1	18
		백분율	27.8%	22.2%	5.6%	33.3%	5.6%	5.6%	100.0%
	중3	빈도	4	6	1	5	8	0	24
		백분율	16.7%	25.0%	4.2%	20.8%	33.3%	0.0%	100.0%
	고1	빈도	10	7	2	7	5	0	31
		백분율	32.3%	22.6%	6.5%	22.6%	16.1%	0.0%	100.0%
	고2	빈도	12	8	4	1	3	2	30
		백분율	40.0%	26.7%	13.3%	3.3%	10.0%	6.7%	100.0%
고3	빈도	6	6	5	4	4	1	26	
	백분율	23.1%	23.1%	19.2%	15.4%	15.4%	3.8%	100.0%	
전체	빈도	39	34	14	32	24	6	149	
	백분율	26.2%	22.8%	9.4%	21.5%	16.1%	4.0%	100.0%	

<표 56> 6-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7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나요?								
			(1) 한민족 공동체	(2) 도와야 할 대상	(3) 협력 대상	1+2+3	(4) 위협 대상	전체
학 년	중1	빈도	5	3	9	17	3	20
		백분율	25.0%	15.0%	45.0%	85	15.0%	100.0%
	중2	빈도	12	3	6	21	0	21
		백분율	57.1%	14.3%	28.6%	100	0.0%	100.0%
	중3	빈도	20	5	17	42	5	47
		백분율	42.6%	10.6%	36.2%	89.4	10.6%	100.0%
	고1	빈도	17	7	12	36	3	39
		백분율	43.6%	17.9%	30.8%	92.3	7.7%	100.0%
	고2	빈도	15	3	15	33	4	37
		백분율	40.5%	8.1%	40.5%	89.1	10.8%	100.0%
고3	빈도	20	5	18	43	7	50	
	백분율	40.0%	10.0%	36.0%	86	14.0%	100.0%	
전체	빈도	89	26	77	192	22	214	
	백분율	41.6%	12.1%	36.0%	89.7%	10.3%	100.0%	

<표 57> 7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8 북한주민은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원함	(2) 다소 원함	1+2	(3) 별로 원하지 않음	(4) 전혀 원하지 않음	3+4	전체
학 년	중1	빈도	5	14	19	5	1	6	25
		백분율	20.0%	56.0%	76	20.0%	4.0%	24	100.0%
	중2	빈도	8	16	24	3	1	4	28
		백분율	28.6%	57.1%	85.7	10.7%	3.6%	14.3	100.0%
	중3	빈도	7	26	33	12	4	16	49
		백분율	14.3%	53.1%	67.4	24.5%	8.2%	32.7	100.0%
	고1	빈도	4	28	32	11	2	13	45
		백분율	8.9%	62.2%	71.1	24.4%	4.4%	28.8	100.0%
	고2	빈도	6	31	37	7	0	7	44
		백분율	13.6%	70.5%	84.1	15.9%	0.0%	15.9	100.0%
고3	빈도	6	27	33	17	2	19	52	
	백분율	11.5%	51.9%	63.4	32.7%	3.8%	36.5	100.0%	
전체	빈도	36	142	178	55	10	65	243	
	백분율	14.8%	58.4%	73.2%	22.6%	4.1%	26.7%	100.0%	

<표 58> 8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9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나요?							
		(1) 부모님, 친구들	(2) 학교 수업	(3) 인터넷, SNS	(4) TV 등 언론매 체	전체	
학 년	중1	빈도	4	6	7	9	26
		백분율	15.4%	23.1%	26.9%	34.6%	100.0%
	중2	빈도	1	5	7	16	29
		백분율	3.4%	17.2%	24.1%	55.2%	100.0%
	중3	빈도	6	14	16	13	49
		백분율	12.2%	28.6%	32.7%	26.5%	100.0%
	고1	빈도	2	5	18	20	45
		백분율	4.4%	11.1%	40.0%	44.4%	100.0%
	고2	빈도	1	2	18	22	43
		백분율	2.3%	4.7%	41.9%	51.2%	100.0%
고3	빈도	5	2	20	25	52	
	백분율	9.6%	3.8%	38.5%	48.1%	100.0%	
전체	빈도	19	34	86	105	244	
	백분율	7.8%	13.9%	35.2%	43.0%	100.0%	

<표 59> 9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0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해보았나요? (복수 선택 가능)								
			(1) 탈북자 만남	(2) 북한 방송, 영 화, 소셜 등	(3) 북한 음식, 문 화 체험	(4) 북한 교육/동 아리	(5) 기타	전체
학 년	중1	빈도	7	9	4	3	3	26
		백분율	26.9	34.6	15.4	11.5	11.5	100.0%
	중2	빈도	7	17	4	5	3	36
		백분율	19.4	47.2	11.1	13.9	8.3	100.0%
	중3	빈도	17	18	11	10	3	59
		백분율	28.81	30.51	18.64	16.95	5.08	100.0%
	고1	빈도	15	17	14	14	6	66
		백분율	22.7	25.8	21.2	21.2	9.1	100.0%
	고2	빈도	17	10	12	12	7	58
		백분율	29.3	17.2	20.7	20.7	12.1	100.0%
	고3	빈도	19	15	20	14	6	74
		백분율	25.7	20.3	27.0	18.9	8.1	100.0%
전체	빈도	82	86	65	58	28	319	
	백분율	25.7%	27%	20.4%	18.2%	8.8%	100.0%	

<표 60> 10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1 북한 출신의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1) 같은 또래, 친구 가능	(2) 조금 다르 지만 가능	1+2	(3) 다소 꺼려짐	(4) 매우 꺼려짐	3+4	전체
학 년	중1	빈도	13	9	22	2	1	3	25
		백분율	52.0%	36.0%	88	8.0%	4.0%	12	100.0%
	중2	빈도	6	19	25	4	0	4	29
		백분율	20.7%	65.5%	86.2	13.8%	0.0%	13.8	100.0%
	중3	빈도	18	25	43	5	2	7	50
		백분율	36.0%	50.0%	86	10.0%	4.0%	14	100.0%
	고1	빈도	16	26	42	3	0	3	45
		백분율	35.6%	57.8%	93.4	6.7%	0.0%	6.7	100.0%
	고2	빈도	22	21	43	0	1	1	44
		백분율	50.0%	47.7%	97.7	0.0%	2.3%	2.3	100.0%
	고3	빈도	19	32	51	0	1	1	52
		백분율	36.5%	61.5%	98	0.0%	1.9%	1.9	100.0%
전체	빈도	94	132	226	14	5	19	245	
	백분율	38.4%	53.9%	92.3%	5.7%	2.1%	7.8%	100.0%	

<표 61> 11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

12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1+2	(3) 별로 그렇 지 않음	(4) 전혀 그렇 지 않음	3+4	전체	
학 년	중1	빈도	6	14	20	3	3	6	26
		백분율	23.1%	53.8%	76.9	11.5%	11.5%	23	100.0%
	중2	빈도	7	15	22	5	2	7	29
		백분율	24.1%	51.7%	75.8	17.2%	6.9%	24.1	100.0%
	중3	빈도	16	28	44	5	1	6	50
		백분율	32.0%	56.0%	88	10.0%	2.0%	12	100.0%
	고1	빈도	11	22	33	11	1	12	45
		백분율	24.4%	48.9%	73.3	24.4%	2.2%	26.6	100.0%
	고2	빈도	11	25	36	6	2	8	44
		백분율	25.0%	56.8%	81.8	13.6%	4.5%	18.1	100.0%
	고3	빈도	12	22	34	15	3	18	52
		백분율	23.1%	42.3%	65.4	28.8%	5.8%	34.6	100.0%
	전체	빈도	63	126	189	45	12	57	246
		백분율	25.6%	51.2%	76.8%	18.3%	4.9%	23.2%	100.0%

<표 62> 12번 문항 학년별 응답 비율